

양희은·강석우의

여성시대



여성시대 10년!

브론즈마우스 수상



2009 + 06 + June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10~11:00

양희은·강석우의

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 004 여성시대가 흐르는 곳
배달의 기수
- 008 이달의 편지
보이스피싱 외
- 052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
부부가 같은 일터에서 일을 하면?
- 058 행복을 찾는 사람들
진정한 교사가 아이들의 변화 이끈다
- 065 여성시대 꾸러미
출산의 달인 외
- 076 아버지의 육아일기
남매간의 우애
- 079 성장보고서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솟는다
- 082 부부클리닉
뽀뽀가 돌아왔다
- 086 우리나라 구석구석
제주올레길
- 090 대중문화 산책
살아 있는 전설 배철수
- 092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여성시대 진행 10년을 돌아보니
- 094 강석우의 스튜디오에서
고요 속의 명상
- 096 이PD의 용쟁호투
여자의 나이
- 098 한 장의 생각
페르디난트 호들러의 <밤>



2009.06 + June

양희은·강석우의 여성시대입니다 진행_양희은, 강석우 프로듀서_이은주, 이창호 방송_MBC 라디오 매일 아침 9:10~11:00 MBC인터넷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_02-368-1500~3, 문의_02-789-1339 주소_(150-604) 서울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400호 여성시대

여성시대/월간지/비매출/2009년 6월호 발행_2009년 6월 10일 발행인_(주)문화방송 대표이사_엄기영 등록번호_라-5413 편집·제작_B&M 커뮤니케이션(02-2272-6046) ※본지는 한국 도서윤리 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김영섭 씨를 찾아서



배달의 기수



생전 처음 방송사에 쓴 편지가 달력 방송되는 행운을 안은 김영섭 씨는 스물다섯 살의 대학생이다. (41페이지 '이달의 편지'에 사연 소개돼 있음)아침 일찍 집을 나서 하루종일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 서둘러 집으로 발길을 돌린다.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신 부모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다. 오토바이 사고로 몸이 불편해진 아버지를 돕기 위해 오토바이를 배웠다. 자전거도 타지 못했던 김영섭 씨에게 오토바이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넘어야 할 산이기도 했다.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두려움도 벗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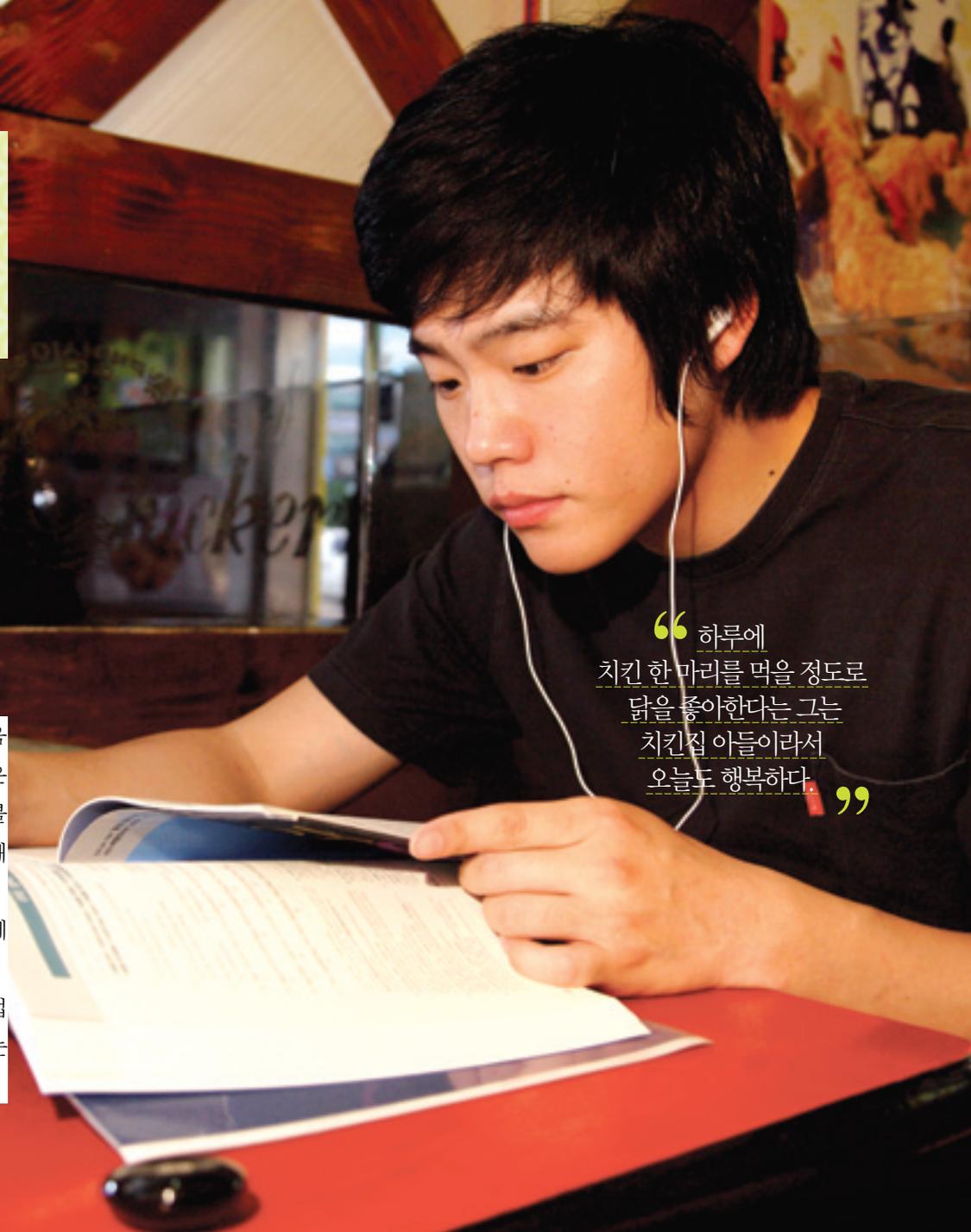


배달의 생명은 신속. 딱딱딱한 치킨을 고객에게 전하기 위해 몸을 재빨리 움직인다.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은 힘이 든다. 하지만 배달이 가장 많은 날은 비가 오는 날. 비오는 날은 더욱 서둘러 집에 돌아온다. 치킨배달과 더불어 담배나 과일, 기저귀까지 부탁하는 고객들도 있다. 하지만 싫은 내색없이 배달을 완수한다.

여자친구가 있지만 저녁시간은 가게에 묶여 있기에 데이트는 주로 주말 오전에 한다. 자신의 환경을 이해해주는 여자친구가 늘 고맙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며 환하게 웃는 김영섭 씨는 천상 착한 아들이다. 하루에 치킨 한 마리를 먹을 정도로 닭을 좋아한다는 그는 치킨집 아들이라서 오늘도 행복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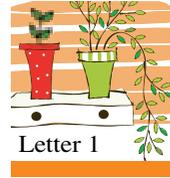
“ 하루에
치킨 한 마리를 먹을 정도로
닭을 좋아한다는 그는
치킨집 아들이라서
오늘도 행복하다. ”



- Letter 01_ 보이스피싱
- Letter 02_ 어머니의 보물찾기
- Letter 03_ 난 맞는 게 너무 싫어
- Letter 04_ 야릇한 문자의 정체는?
- Letter 05_ 아이의 영어교육
- Letter 06_ 딸을 믿었는데...
- Letter 07_ 여고 동창 모임
- Letter 08_ “쌍디야! 단디해라”
- Letter 09_ 베트남에서 온 프엉 씨
- Letter 10_ 배달원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 Letter 11_ 서울대 가라고?
- Letter 12_ 퇴짜맞은 생일선물



• 일러스트_ 김금복



보이스피싱

● 글_정종술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저는 강남우체국 모모 아파트 25동을 담당하고 있는 집배원입니다. 한 가지 여쭙게 있어서 전화 드렸는데요.”

“잔말 말고 끊어. 이젠 안속아, 이것야.”

우체국 체면이 이렇게 떨어진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 부인은 아주 다정다감하고 항상 미소로 저를 반갑게 대해주시던 분입니다.

그날 아침, 등기우편물을 정리하다보니 그 택배 사는 분이 아닌 성함의 등기가 두 통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하는 시간에 택배 잘 안계셔서 일단 전화로 아는 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아는 분이면 택배, 그 시간에 계시지 않으면 경비실에 맡겨 놓으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대뜸 그러합니다. 그러곤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전 ‘아! 이분도 전화사기에 많이 시달리셨구나!’ 생각하고는 다시 전화를 걸어 “고객님! 제 목소리 모르시겠어요? 담당 집배원이에요. 전화 끊지 마시고 말씀 좀 들어 보세요” 했더니, “홍! 이제 수법을 달리했구먼. 무슨 소리를 해도 안속으니까 사기치지 마” 하며 또 끊어버립니다.

전 전화하는 걸 포기하고 그냥 등기우편물을 챙겨 그 택배 방문했습니다. 마침 계시더군요. 부인에게 아까 전화한 사람이 저라고 말씀드리니까, 미안해 하면서 하소연을 하더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대서 우체국이라면 대뜸 반감부터 생기고, 무슨 말이든 거짓말로 들려서 그랬다고 하네요.



“제발 그것 좀 막을 수 없나?”며 안타깝게 절 바라보시더군요. 소포가 올 때가 있어서 기다리는 집이다 “택배를 갔더니 집에 사람이 없어 반송하게 되었으니 몇 번을 눌러 반송을 막아야 한다”는 전화가 오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작위로 전화를 해대면 집중팔구 누군가는 사기에 걸려들게 마련입니다.

우체국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소포나 택배, 등기편지가 반송된다는 걸 알리지 않습니다. 몇 시경에 배달을 간다는 문자메시지는 보냅니다. 맥에 계시지 않을 때는 다음날 다시 방문한다든지 어디 맡길 곳이 있는지 여부를 전화로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담당하는 집배원이 정해져 있으니, 담당 집배원 전화번호를 알아두셨다가 택배나 등기, 각종 우편물에 대해 궁금하면 바로바로 알려드리니까 절대 사기전화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에 떨어진 우체국 체면을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어머니의 보물찾기

● 글_송명숙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어머니는 강원도 평창의 작은 시골마을 ‘계촌’이라는 곳에서 담뱃가게를 하며 두 손녀와 함께 사셨습니다. 집안 뒤뜰에 한 평 남짓한 작은 화단을 꾸미셨고, 그 화단은 어머니의 보물창고였지요. 산에서 캔 취나물이며 달래, 곤드레, 개두릅, 참나물 등 저로서는 이름도 모르는 열 가지도 넘는 산나물을 정성스럽게 키우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머니는 그 씹싸래한 산나물들을 절대 잡숫지 않았습니다. 그저 적당히 잎사귀가 자라면 동강동강 줄기를 잘라낸 후 삶아 냉동실에 저장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잎사귀가 자라면 다시 마디를 잘라 또 삶은 후, 냉동실에 차곡차곡 저장했습니다.

그렇게 냉동실에는 초봄에서 여름까지 한 번도 잡숫지 않고 모아놓은 산나물이 빼곡히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것은 한 달에 한번 다녀가는 우리 자식들에게 1년 내내 산나물을 먹게 해주려는 배려였고, 우리들은 어머니의 밥상에서 1년 동안 내내 그 산나물을 된장에 찍어 먹거나 고추장에 찍어 맛나게 먹었습니다. 밥상은 어머니였습니다.

돌아가신 후, 이제 계촌엔 내려갈 일이 없지만 그 뒤뜰이 못내 걱정이 되어 신랑에게 시골집에 내려가 보자고 했더니, 남편은 “이미 개두릅나무를 형님이 잘라버려 자기 좋아하는 나물 없어” 합니다.

그날 밤, 어머니 같은 그 화단이 없어진 속상함으로 신랑이 잠든 후, 혼자 빼

란다에서 쪼그려 앉아 한참 울었습니다. 무지 속상하더라고요. 그 화단은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시는 많은 용돈이고, 세상에서 가장 맛난 밥상이며 어머니의 사랑이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참 재밌고 귀여운 분이셨어요. 명절이면 첫날 친구들과 몰려나가 하룻밤 꼬박 새고 들어와 잠만 자는 신랑이 미워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 다시 고쳐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루 종일 잠만 자고요” 했더니 어머니가 “일 없다. 종맹이는 내 아들로는 고칠 게 암 것도 없다. 고쳐 쓰려거든 나가 고쳐 써라. 흥이다” 하셨지요.

그리고 밤이 되어 잠을 잘라치면 늘 함께 주무시는데, 꼭 잠자리를 제 신랑이랑 현서 사이에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 서방이고, 제 아들이거든요? 거기 제자리예요.”

“일 없다. 내 아들이고, 내 손자다. 여긴 내 자리다.”

그리곤 얼른 불을 끄고 누우셨습니다. 저도 당연히 알았죠. 한 달을 기다려 하룻밤에 그동안 차곡차곡 가슴 안에 쌓아놓은 사랑을 한꺼번에 다 주셔야 하는데, 잠시 양손에 손자와 아들 손을 꼭 잡고 주무신다고 해서 한철 준비해 1년을 먹이는 산나물의 향기만으로 어떻게 그 큰 사랑을 다 보여주시겠어요. 그저 내일이면 다시 올라가 버릴 아속한 아들 식구들에게 그렇게라도 위안을 삼으려 하시는 것일요.

그래서 전 이런 어머니와의 장난기 어린 대화가 참 좋았습니다. 어머니도 이 장난기 많은 철없는 막내며느리를 친구처럼, 딸처럼 좋아하셨죠.

언제였던가요. 그 작은 시골집에 어머니를 두고 올라오려고 준비를 하다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집 앞에서 용돈이 든 봉투를 들고는 되었다고 손사래치는 어머니와 꼭 받아야 한다는 막내며느리의 작은 실랑이가 부담스러웠던 저는 용돈을 넣은 하얀 봉투를 냉동실에 넣어두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실랑이 없는 귀찮길은 마음이 조금 편했습니다. “받아야 한다”, “아니다, 됐다” 하며 옥신각신하다 자동차 뒤창으로 점점 멀어지는 어머니 모습에 늘 눈물이 났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즐거웠습니다. 신랑이 묻더군요.

“집에 가는 게 그렇게 좋아? 아주 얼굴이 신났다?”

“호호, 그런 거 아냐. 그나저나 자기는 어머니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드린 적 있어?”

곰곰이 생각하던 그이는 “그리고 보니 한 번도 없네” 했습니다. 저는 신랑의 휴대전화를 꺼내 어머니의 번호를 누르곤 그의 손에 들려주며 “지금 말해드려. ‘엄마, 사랑해’ 하고” 했습니다.

신랑이 저를 뜬금없단 표정으로 보다가 이내 쑥스러운 듯 조그만 목소리로 “엄마, 건강하세요. 조심해서 올라갈 테니 걱정 마시고요. 음... 엄마, 사랑해” 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 및 말씀을 더 듣고는 이내 “네, 네. 현서 엄마한테 잘 할게요. 저도 알아요” 하더니 전화를 끊고는 살며시 제 손을 잡고 “고마워. 자기가, 사랑해” 했습니다.

신랑의 눈가에 눈물이 잠시 번졌습니다. 집에 거의 다와 갈 무렵, 이번엔 제 휴대전화로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야! 현서야! 이거 냉동실에 이거, 니가 두고 갔냐?”

아마도 봉투를 발견하신 모양입니다

“야? 어머니 벌써 찾으셨어요? 에이 시시해. 답엔 어려운 곳에 두어야지” 했더니만 “어야, 고맙다. 내 잘 쓰마”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와 저와의 보물찾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틀 후에 찾았다는 전화가 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전화로 도저히 못 찾았으니 귀찮이라도 해달라는 애교도 보여주시고, 또 어느 날은 막내고모님이 전화해 “오늘은 내가 찾았으니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 반 갈라 가진다. 고맙다. 호호호” 하셨습니다.

또 어느 날은 아침에 밥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니 쌀통에 숨기면 못 찾을 줄 아냐? 고맙다. 잘 쓰마.”

이런 날이면 아침부터 행복했습니다. 어머니의 들뜬 소녀 같은 음색이 나를 하루 종일 행복하게 하고, 아침식사를 하며 “당신, 엄마가 이런 전화했다”고 전하는 내 얘기를 듣고 출근하는 신랑의 얼굴도 행복이 한 가득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물찾기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봉투를 찾아내실 때까지도 우리도 어머니 곁에 아직 머물러 있다는 사실어요. 그 봉투를 이번엔 어디다 두었을까 찾으시는 어머니의 머릿속, 가슴속, 어머니가 뒤지고 다니는 집 안 곳곳에 우리 세 식구가 계속 맴돌고 있었다는 것어요.

물론 어머니가 찾았다고 하는 전화가 오기 전까지도 내내 내 가슴에도, 머릿속에도 어머니가 머무른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신랑이 무리한 동업을 시작한 관계로 살림이 어려워지자 줄일 수 있는 지출을 다 줄이고도 버거워지자 어머니의 용돈까지 줄여야 한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것만은 안 된다는 마음의 소리와 잘 되면

그때 보상하지는 현실의 소리에서 갈팡질팡하다 결국 현실의 소리에 마음을 잡고 시골로 내려가기 바로 전 두 개의 흰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각각 3만원씩을 봉투에 넣고 다시 노트에서 두 장을 찢어 가위로 오려낸 뒤 사인펜으로 어머니가 읽으시기 편하게 크고 진하게 짙막한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더 나아지면 꼭 많이 드릴게요. 돈은 적게 넣었어도 제 맘은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에요.’

‘어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꼭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섭섭해 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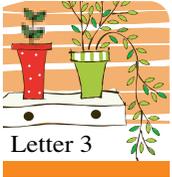
각각의 편지를 봉투에 함께 넣어 또 요기조기 숨겨놓았고, 그걸 찾으신 어머니는 바로 또 전화를 하셨습니다.

“내 안다. 니들 힘든 거.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난 니들이 잘 사는 거 거 하나면 하나도 부러울 게 없어. 니들 돈 나 한 번도 쉽게 받지 않았다. 항상 니들에게 두 손으로 공손히 감사하는 맘으로 받았다. 현서야! 이제 이런 거 정말 하지 않아도 난 괜찮아.”

그리고 3일쯤 후인가, 신랑이 없는 낮 시간에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 니들 도와주지도 못하고 내가 너 볼 낮이 없다. 그래 잘 살아야 한다. 난 너한테 섭섭한 거 하나도 없다. 에미로 너 볼 낮이 없다. 너 볼 낮이 없어” 하며 목메어 하셨습니다. 아마도 두 번째 봉투를 찾으신 거겠죠.

참 어려우실 텐데도 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지요.

그런 어머니를 아버지 옆에 고이 모셔두고 집으로 올라온 그 밤에 신랑이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에게로 다가가서 살면서 그의 얼굴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어머니의 막내아들이 서럽게 눈물을 흘리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맘 놓고 어머니를 우리의 가슴에 조용히 묻어 보았습니다. ♥



난 맞는 게 너무 싫어

● 글_유현영 | 전북 익산시 영등동

우리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 들어서 첫 중간고사를 봤고, 저는 이번 일주일 내내 학교에 불려가야만 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건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반항적으로 행동했는지 이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정말 악몽 속에서 살았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아들이 걸핏하면 “난 엄마만 보면 짜증나거든. 그냥 나가고 싶거든!” 했습니다. 이런 불량스러운 말을 할 때마다 진짜 맘 같아선 귀싸대기를 올려서 그런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고도 싶었지만 꼭꼭 참았던 것은 남들이 말하는 사춘기라는 것이 찾아왔으니, 그것을 잘 넘기라는 조언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디 엄마한테 “짜증난다”는 말을 저리 서슴없이 해대는가 싫어 억울하기도 했고, 분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낳았다고 어머니가 쌀 한 가마니를 풀어 떡을 해 동네에 돌렸고, 저를 무슨 규수대하시듯 너무도 잘해주셔서 ‘아들이 좋긴 좋구나!’ 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키웠습니다.

할머니 사랑극진히 받으니 혹 조동으로 자라는 것 아닌가 싫어 아빠 월급만 오는 날이면 정중하게 앞에 서서 다 같이 큰절 올리는 예절을 가르쳤고, 혹여 남편과 다들 일 있으면 정말 어려워도 참고 있다가 애들 잠잘 적에 대화를 하곤 했지요. 그것도 힘들면 애들 책보고 있으라 하고 밖에 나가서 다투고 오곤 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적, 우리 보는 데서 부모님이

심하게 다들 적마다 ‘어찌 우리는 이렇게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하고 우울해 하며 밖으로 뛰쳐나가고픈 충동을 수십 번도 더 느꼈지요. 그 똑같은 기억을 우리 아이들에게는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부단히 노력했던 만 ‘이제 돌아오는 것이 이젠가?’ 싫어 허탈하기도 했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반항이라 여겨 여태껏 참아왔는데, 지난주에는 진짜 황당한 전화를 받아 이연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일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고,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끔씩 우리 아들이 밖에 나가 예절 바르게 잘 하고 있는지 걱정돼 자라는 과정을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중이었는데, 학교에서 출두명령이 떨어지니 어찌 마음이 온전하겠습니까?

제가 불려간 이유는 아들이 몇 명의 패거리들과 짜고 시험 답안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 잘 한다는 사실은 물론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바보짓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마치고 학원을 오가며 바쁘게 공부했던 아이라서 성적에도 관심 많은 아이라고 믿었거든요.

‘왜 아무런 이유 없이 친구들에게 시험 답안지를 보여줘 선생님께 오해를 샀을까?’

저는 부랴부랴 학교를 찾았고, 역시나 선생님은 아들을 불량 학생을 취급하듯 하면서 “정답을 친구들에게 돌리는 부정행위를 했다”며, “매주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정확한 건지 경위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다소 반항적인 발언과 행동들을 했지만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냥 부정행위를 했으니까 그것에 해당하는 반성문을 학생이 써야 하고, 어머니도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냉랭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가 있는 듯싶었지요.

일주일간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학교에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왜 부정행위를 했는가를 정확하게 진술하라 했는데, 문제는 아들이 진술서를 적지 않고 자꾸 싫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일주일 내내 불려 다녀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아들에게 두 손을 모으고 빌다시피 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왜 답안을 보여준 거야? 엄마가 그 내용을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아빠랑 대처할 방법을 찾자용?”

그제야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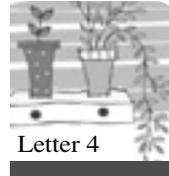
“이번 시험 보여주면 1년 동안 안 때리고, 날 봐준다고 했거든. 난 맞는 게 너무 싫어, 엄마. 지난 일학년 때도 엄청 날 때렸어. 난 그게 무서웠어. 엄마! 사물함도 다 뜯어놓고, 내 물건들 다 가져가고. 그러지 말라고 하면 바보 멍청이 취급해. 엄마, 난 학교 싫어. 시험 싫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걸핏하면 엄마에게 “엄마가 싫거든. 엄마가 싫거든” 할 적에 단순한 사춘기 푸념으로 알고 얼른 지나기만을 기다렸건만 그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억울하게 소외당하고 학대받는 것이 너무 싫어 그것을 분출할 방법으로 집에 와 엄마에게 “싫다”, “빡다”는 말로 반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학생을 불러 대면을 시켜 문자, 의외로 쉽게 그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로 하여금 진술서를 쓰게 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전 아들이 일주일간 정신도 못 차리고 마치 죄인처럼 시험답안 돌린 불량학생으로 취급을 당했던 것이 너무도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를 마칠 때까지 혼자 숨죽이듯 가슴 속에 묻어뒀던 고통들을 상상하면서 엄마 마음이 미어지듯 아프네요.

부디 이런 일들, 학교에서 음성적으로 벌어지는 왕따 및 구타, 학대, 괴롭힘 등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야릇한 문자의 정체는?

● 글_윤귀자 | 전북 익산시 동산동

요즘 모두 그렇듯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세상 살아가는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50을 바라보는 나이라 그런지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가끔 괜히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올해 26세인 아들은 군산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금요일까지는 기숙사에 있고, 5일 근무를 마친 금요일 저녁 집에 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 제 휴대전화에 이상한 문자가, 그것도 아침마다 오는 거예요. 문자 멘트는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야릇한 문자였어요. 주로 ‘윤 여사님! 아직도 미인이십니다.’ 아니면 ‘윤 여사님! 언제 저하고 차 한 잔 하실까요?’ 혹은 ‘윤 여사님! 제가 늘 윤 여사님 지켜드릴게요’ 또는 ‘윤 여사님!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하고 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제 휴대전화에 찍힌 상대방 전화번호를 생각해봐도 도무지 누군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저장된 전화번호를 다 확인해 봐도 제가 아는 번호는 아니었지요. 그래서 문자가 잘못 온 것 같다면 번호를 잘 확인하고 보내라고 문자를 보내 봐도 계속 야릇한 문자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문자 내용을 보여주면서 “여보! 요즘 이런 이상한 문자가 계속 와. 혹시 당신이 이 번호 아는 번호야?” 하고 물어봤더니, 남편도 모르는 번호라면서 “어느 놈이 할일 없고 심심해서 장난치는가 보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번 금요일 저녁, 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며 제 얼굴을 살피더니 “엄마, 요즘도 우울하고, 몸이 많이 아프세요?” 문기에 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 니 엄마도 이제 아플 나이가 됐나보다. 그리고 요즘엔 뭘 이상한 문자까지 와서 머리가 더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화들짝 놀라며 하는 말이 “엄마, 더 아프면 어떡해요. 전 엄마 기쁘게 해드리려고 회사 동료 휴대전화까지 빌려서 아침마다 문자 넣어드렸는데요” 하지 않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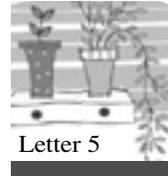
알고 봤더니 그 이상하고 야릇한 문자를 보낸 사람은 바로 우리 아들 녀석이 었더라고요. 제 판에 이 엄마가 우울해 하니까 잠시라도 웃게 해주려고 동료 휴대전화까지 빌려가면서까지 문자를 보낸 것이 었더군요. 자기 휴대전화로 하면 이 엄마가 금방 알 것 같으니까 동료 걸 빌려 그런 끔찍한 문자를 보낸 것도 모르고 우리 부부는 밥 먹고 할 일 없는 놈이라고 욕을 했으니 너무 웃기기도 하고 좀 황당했어요.

이제 직장생활을 한 지 5개월 된 우리 아들 때문에 웃습니다. 이렇게 착한 우리 아들은 지금 26세인데도 아직 여자친구가 없어요. 술과 담배도 안 하고,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장가가려면 집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넓은 평수는 아니지만 근산에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도 분양을 받아 놓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때로는 기특하고 또 너무 안쓰러울 때도 있어요. 우리 부부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둘 다 장애를 갖고 평생을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불평없이 잘 자라준 우리 아들이 정말 고맙기만 합니다. 늘 제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지요. 그리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컸지만 늘 감사할 줄 알고 모르는 사람에게 겸손할 줄 아는 우리 아들은 이 엄마의 꿈이랍니다.

앞으로 좋은 여자친구도 생겨서 우리 아들이 더 기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이 엄마는 가져봅니다. 지금도 하루에 한 번씩 꼭꼭 문자나 안부전화를 하는 우리 아들. 늘 건강하고 회사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학근! 엄마 아들 파이팅!” 하고 외쳐봅니다. ♥



아이의 영어교육

● 글_김미경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저는 여섯 살과 18개월 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며칠 전, TV 아침 프로에서 모 연예인이 가족들을 모두 해외에 보내고 혼자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가족이 해외로 간 이유는 영어 연수를 위해서였지요.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이 외국만 못 하나까,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외국으로 가족을 모두 떠나보내고, 혼자서 총대를 메고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거겠죠. 조금 산다 하는 가정을 살펴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영어가 뭔지! 영어 하나 때문에 멀쩡한 가족이 이산가족이 되어서 나는 한국에서 돈 벌고, 나는 외국에서 애들 키운다는 식으로 부부가 생활을 달리한다는 게 정말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인지 궁금해요. 좀 산다는 집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 집처럼 남편 박봉에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집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지요.

저희도 큰아이가 여섯 살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을 귀담아 듣게 되더라고요. 누구는 한 달에 80-90만 원씩 드는 영어유치원을 보낸다느니, 누구는 일주일에 선생님이 20분씩 수업해주고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드는 방문학습지를 시킨다느니, 누구는 한 질에 40-50만 원 하는 영어동화책을 들여놓아 주었다느니...

귀가 얇은 저로서는 발만 동동 구를 뿐 아이를 위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우리나라 초등 영어 교육에 대한 기사가 났지 뭐예요.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 엄마들은 자식들 교육이라면 물불을 안가리고 나서는 경향이 있는데….

나라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과목을 신설해 공교육을 통해 영어를 제2의 국어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공표를 한 순간부터 아이들 영어교육을 시키던 엄마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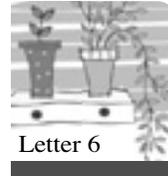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과목이 들어가니까, 엄마들이 입학 전부터 영어를 익혀서 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제 갓 돌 지난 아이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영어에 노출을 시켜주려고 안달이 났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영어동호회 같은 곳을 검색해보면 ‘아이가 이제 갓 돌이 지났는데, 어떤 영어책을 사주어야 할까요?’, ‘이제 20개월인데 영어 방문학습지를 시켜야 할까요?’, ‘영어 비디오는 어떤 게 좋을까요?’ 등 많은 질문에 답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 ‘저희 아이는 여섯 살인데, 어떻게 영어를 시작해야 할까요?’ 하고 카페에 글을 올렸더니, ‘너무 늦으셨네요. 이제 아이가 알 건 다 아는 시기가 되어 엄마가 원하는 대로 영어에 노출되는 걸 꺼릴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한글과 영어를 잘 모를 때 시작하셔야 효과가 빠를 텐데요’ 하는 식의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더군요.

정부에서는 사교육비가 들지 않고, 나라에서 책임지고 아이들에게 영어교육을 시켜주겠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초등영어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할 사람은 하고 있었고, 초등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그 비중이 적지 않았던 몇 년 전에 비해 지금은 아예 엄마들이 대놓고 경쟁적으로 너무나 어린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스트레스를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저요, 전업주부로서 두 아이 키우느라 너무나 힘겨웠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또 영어공부까지 시켜야 한다니, 정말 ‘맘소사’입니다. ♥



딸을 믿었는데…

● 글_고옥선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엄마, 내일 저녁에 오빠 데리고 올까?”
“개 담배는 끊었어? 담배 확실하게 끊는 것 보고 집에 데려온다고 했잖아.”

“응, 담배는 끊은 지 한 달 정도 되었고, 오늘이 만난 지 딱 360일째인데, 그동안 겪어보니까 사람이 항상 변함이 없어.”

“그래? 너도 이제 슬슬 눈에 콩깍지가 썬는 중인가보다. 그럼 너 목요일에 반 나절만 하잖아. 그날 오라고 해라. 너랑 함께 시장 좀 봐서 뭐라도 만들어 대접해야지.”

“뭘 맛난 것 해줄 거야?”

“뭘들 제일 좋아 하나? 이왕이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해주게.”

“뭘든 다너무 잘 먹어서 탈이야. 까딱하다가는 아버지 배 되겠어.”

“아! 니 아버지는 40대까지는 배 그렇게 안 나왔어야. 농사일에 찌들어가지고 배나올 틈이 없었지만.”

“히히. 엄마는 아버지 불룩한 배가 보기 좋아?”

“그게 뭐 좋겠나만 그전같이 뺄뺄 마른 것보다는 내 눈에는 지금이 훨씬 멋져 보인다.”

“참말로 우리 어머니·아버지는 아직도 콩깍지가 안 벗겨졌는가봐. 그동안 고생시키며 산 것 생각하면 절로 정이 떨어질 텐데, 가만 보면 두 양반은 참말



로 친생연분이랑께.”

“후후후. 그러 시집와서 고생한 것 생각하면 밍고, 원망스럽고 같이 한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도 싫겠지만 어찌긋냐? 고것이 다내 팔자인 것을. 니 아버지 만난 것도 내 팔자고, 니들 셋 낳고 뇌경색으로 쓰러져 누워 계신 할머니·할아버지 보살펴드리는 것도 다나한테 짊어져 준 짐인 것을. 어떻게 그걸 거스르고 살겠냐?”

“엄니는 피할 수도 있었잖아. 큰엄마한테 미뤄도 되는데 고생을 사서 했다고 큰고모가 지난번에 그러시더만. ‘니 엄니는 스스로 고생 구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간 바보’라고. 할머니 보고 싶다. 우리 할머니 살아 계셨으면 남자친구 보고 뭐라고 할까? 나 시집가서 애기 낳으면 다 키워준다고 손가락 걸고 약속했는데. 아함, 엄니 나졸려. 이제 잘래.”

입을 짹 벌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하품을 하는 딸이 이불 위로 쓰러지는 걸 보고 드르릉드르릉 코까지 골면서 잠이 든 남편 옆에 누워 어지러운 머릿속을 정

리해봤습니다.

‘제가 바로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찌지? 4년 동안 벌어들인 돈은 빚 정리하는데 다 써버리고. 한 3년 후에 결혼하겠다고 해서 3년짜리 적금 들어가고 있는 게 아직도 2년이나 남았는데...’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설치다 깜박 잠이 들었는데 출근 준비하는 아들의 양치질 소리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하루종일 찌개와 반찬을 무엇으로 해 사윗감이 될지도 모르는 총각을 대접 해주어야 할지 메모장에 그동안 자신 있게 했던 요리 목록을 작성해 봤습니다. 고민을 하고 적어놓은 메모장을 퇴근하는 딸아이한테 보여 주었더니 딸은 방긋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 뭐 잔치할라우? 그냥 우리 먹는 것에도가 한두 가지만 더 추가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야?”

“어떻게 신경을 안 쓰냐? 혹시 우리 집 하나밖에 없는 백년손님이 될지도 모

르는데.”

“엄마, 미안해.”

“뭐가?”

“그냥, 그냥 미안해.”

“야가 갑자기 철이 들었나? 왜 안 허던 소릴 허고 그러?”

“그러게, 히히히.”

드디어 딸아이가 27년 만에 생전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집으로 초대할 날입니다. 아들들한테도 될 수 있으면 7시 안에 들어오라 당부를 하고, 닭볶음탕을 잘 먹는다는 소리에 토종닭을 한 마리 사서 얼큰한 고추장에 갖은 양념을 하여 감자와 함께 재놓고, 시금치와 토란대 그리고 콩나물을 무쳐놓았습니다. 또 당근과 시금치, 부추와 느타리버섯과 목이버섯 등을 데치고 볶아, 있는 숨씨 없는 숨씨를 발휘해 야채잡채를 해놓았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에 뺨곰 내다보니 한 손에 과일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던 녀석이 “어머니, 저왔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 5개월 전쯤, 집 앞에서 가깝게 인사를 주고받은 후 처음 대면하는 것입니다. 현관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과 아들 둘이 일어나 맞이하자 생글생글 웃으면서 먼저 아들들한테 악수를 청합니다.

“아버님 · 어머니! 절 받으셔야죠. 좀 앉아주세요.”

“아냐, 아냐. 아직은 아냐.”

“저기, 해야 하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그건 아닌 거야, 두 사람 확실하게 결혼 결정한 뒤에 우리들한테 결혼 허락 받고 해도 늦지 않아.”

“자, 어서 손이나 씻고 배고플 테니 밥이나 먹세.”

남편이 식탁에 앉으면서 재촉하니 주춤주춤 주방으로 들어오는데, 그 옆에 딸아이는 교목나무에 매미처럼 찰싹 붙어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맛을 보듯이

고루 젓가락이 오가고 한 공기는 부족하다며 밥을 더 달라는 걸 보니 억지로 먹는 것 같지는 않아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현관에 모여 과일을 한 쪽 먹으려는데 갑자기 이 녀석이 우리 앞에 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아버님 · 어머니!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결혼식을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허락해주시시오.”

“뭐? 결혼식을 해야 한다고? 왜? 뭔 일 땀에 그렇게 빨리? 흑시...”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지금 경이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5주되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라고? 우리 경이가 임신했다고? 언제? 니들 언제 그런 일이? 지금까지 외박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

믿었던 딸에 대한 배신감으로 떨리는 몸을 겨우 지탱하고 앉아 있는데, 불현듯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 내 어머니. 바로 29년 전의 내 어머니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과 흡사 닮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눈치만 보던 나를 쿡쿡 쥐어박으면서 “아, 왜 그랬어? 어찌려고 그랬어? 너를 믿었는데 인자는 어쩡다냐?” 하시며 소리 죽여 신음소리를 토해내던 우리 어머니.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어머니 마음을 이제 거의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멀었나 봅니다. 커다란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광 맞고 정신을 놓아버린 듯 몸도, 입도, 생각도 정지해버렸습니다.

“엄마! 엄마, 사실 나는 많이 걱정했는데, 우리 아기한테 정말 고마워하고 있는 중이야.”

이주 조그맣게 내 귓가를 울리는 이 한 마디에 번쩍 정신이 들어 딸아이 얼굴을 바라보니 딸이 눈가에 글썽글썽 눈물을 머금고 애처롭게 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참 우리 아이는 다르지. 이걸 다행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나?’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딸아이는 1년 전, 왼쪽 난소에 큰 혹이 2개나 있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은 잘되어 난소는 건강해졌고, 자궁내막증도 잘 치료했습니다. 다만 1년이 지난 후부터 재발 위험성이 많으니 가능하면 일찍 결혼을 시키라는 의사의 말에 내심 걱정을 하긴 했으나 딸이 앞에서는 한 번도 불안한 내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딸은 산부인과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많은 이즘마들이 불임으로 심적 고통을 받는 걸 보면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나봅니다.

녀석은 딸이 수술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고 “만약 불임이 되어 아기를 낳을 수 없어도 나하고 결혼을 하겠냐?”고 당당하게 묻는 모습이 왠지 자신감이 있어보여 종손집 장손이면서도 망설임 없이 결혼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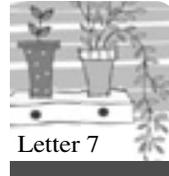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쪽 집의 반응을 물으니, 시부모님들이 딸아이를 너무 예뻐하신다며 금방 표정을 풀고 싱글벙글하는데, 정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우리 부부는 그자리에서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일사천리라고 해야 하나요. 바로 다음 날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 날짜 결정, 결혼식장 계약, 우리 집 옆으로 신혼집 계약 등 일주일 만에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산부인과에 따라가 아기 심장소리와 초음파 사진까지 봤는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그저 구름 위에 등실 떠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돈댁에서는 다행히 우리 집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밥만 끓여 먹을 수 있도록 간단한 살림도구와 침구만 들여놓고 살아가면서 지들이 한 가지씩 장만하도록 해주자”고 먼저 말씀해주시니 일단 마음은 가볍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해서 시집을 보내야 하는데….

오늘부터는 손님도 없는 가게에 앉아 있을 게 아니고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 가격이 싸면서도 좋은 가구들을 보러 다녀야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경아! 부디 결혼해서도 지금과 같이 고운 마음으로 시부모님 공경하고 싸우지 말고 예쁘게 잘 살아주길 바란다. 경아, 지금도 전혀 실감이 나진 않지만 축하한다. 결혼도 애기도 모두 축하한다. 부디 부디 행복하게 잘 살려무나.’ ♥



Letter 7

여고 동창 모임

● 글_김현아 | 경북 안동시 와룡면

여고 동창들 모임이 있습니다. 유달리 맘이 잘 맞아 20년 넘도록 이어진 우정의 친구들입니다. 그들 다섯 중에 둘은 사업하는 남편을 만나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한 명은 어릴 적부터 연애를 해 부모님의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한 사랑으로 경제적으로 좀 힘든 삶인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둘은 열심히 가정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며 일인다역을 해내면서도 별 불평 없이 주어진 환경에 적당히 만족하지만 크게 행복하다 또는 불행하다는 느낌 같은 것 없이 덤덤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주부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들의 대화 중 90%는 재산증식, 아이들의 공부 이야기가 되어버려 사실상 우리들의 이야기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정기적인 모임에 다녀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돈 잘 번다는 사업하는 남편과 공부도 꽤 잘 한다는 아들과 넉넉하게 살고 있는 친구가 아이들 학원시간 맞춰 데리러 다니느라 작은 차를 타고 다녔는데, 이번 모임에 검은 중형차를 타고와 모두들 “와!” 하고 놀랐습니다. “소문도 없이 웬 저렇게 큰 차냐?”고 묻는 말에 친구의 대답은 모두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생일에 그동안 잘 살아주고, 아이들 잘 키워줘 고맙다며 앞으로도 잘 살아달라고 남편이 생일선물로 준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 생일선물로 저렇게 비싼 차를?’

참 심란하더라고요. 잘사는 친구를 부러워한 적도, 넉넉지 못한 내 살림에 자존심 상한 적도 없었지만 이번 일은 '사는 게 왜 이렇게 층이 지는 걸까' 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나의 그 욕심 없는 마음이 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친구의 말에 정말 그래서 그런지 밤잠을 설치기까지 했네요. 넓지 않은 평수의 아파트, 주차를 해도 주차비를 만만 받고 초보로 시작해 10년을 넘게 타면서 주인 잘못 만나 툭하면 탈이 나는 작은 차는 물론이고, 외식 한 번 하려면 몇 번을 망설여야 하는 뼈뺀 생활비로 살고 있어요.

영화 한 편 보는 일도 몇 번은 참았다가 “관객이 얼마가 들었다는데 그거 봤지?” 하고 누군가 묻는 말에 자존심이 상해 대화가 되지 않을 듯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관람하는 정도의 내 문화적 수준이지만 뭐 특별히 대화 못할 정도는 아니고, “뭐 이런 거 별로 불편하지 않다”고 말하는 내게 그 친구가 그래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 이제 부동산에도 눈 좀 돌리고 주식에도 신경 좀 쓰고 해야 할 나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 동창 누구는 이번에 어디에 땅을 얼마 샀는데, 엄청 올랐다. 남편들 걸으론 말 안 해도 투자해서 돈 좀 벌었다고 그래봐 진짜 좋아해” 합니다.

대화의 내용이 거의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친구의 말대로 내가 재산증식에 너무 욕심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 결혼연차가 이만큼이 지났음에도 늘 제자리걸음인가, 또 그저 월급을 타서 부식비 쪼개가며 열심히 저축이나 하고, 남에게 이쉬운 소리 안 하고 사는 걸로 만족한 삶이 잘못된 건가 싶어요.

사실 전 펀지도 아직 잘 모르는 그 펀드란 거요. 세상에 온통 ‘3억 만들기’ 펀드에서부터 돈을 벌려면 펀드를 해야 한다고 난리법석일 때도 꿈쩍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저축만 해선 오히려 마이너스란 말도 있지만 그저 열심히 얼마의 추가 이자를 더 준다는, 꼭 예금자 보호가 되는 은행을 찾아 저금을 했을



뿐인 이 무지한 재테크 때문에 남들 “얼마 벌었네”, “얼마나 남았다네” 할 때 입 꼭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잘 모르면서 담비는 거 그거 위험한 거 맞죠? 사람 사는 게 위로 보자면 끝도 없고, 사실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또 내 아래로 보자면 끝도 없는 삶인데, 슬슬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이렇게 살다조만간 초고령사회로 들어선다는 우리나라에서 내 노년은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찌 살아야 정말 잘사는 건지, 그 해답 없는 문제 앞에서 괜히 저 맑은 햇살에 대고 “날씨는 또 왜 이리 좋은 거야! 사람 심란하게...” 하며 눈이 부시도록 푸른 세상에 투정을 부려봅니다. ♥



“쌍디야! 단디해라”

● 글_이호현 | 경남 김해시 장유면

은 해로 31세가 된 평범하고 무뚝뚝한 경상도 청년입니다. 제 위로 형이 둘 있는데, 바로 위의 형이 저랑 비슷하게 생기고, 나이가 같은 쌍둥이 형입니다. 대학입시에 낙방하고는 방황하고 있을 때, 쌍둥이 형이 제안을 하더군요.

“군대 갈래? 엄마도 편찮으시고, 집안도 어수선한데 빨리 갔다오자.”

“어디 가자고? 해군? 육군? 어디?”

“해병대.”

“머라꼬, 거기 억수로 힘들다는데...”

“그래도 함 가보자.”

“진짜 갈라꼬?”

“어, 가자.”

몇 해 전부터 어머니가 간이 안 좋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쌍둥이 형과 함께 해병대를 자원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입대를 며칠 남긴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 급히 중환자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입대 당일, 며칠을 의식없이 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가려니 발이 떨 어지지 않았습디다. 우리 아버지도 해병대를 나오셨거든요. 아버지 군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던 어머니께서 저희 쌍둥이가 같이 해병대에 간다고 했을 때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그렇게 두고 입대를 하려니 더 맘이 무거

웠어요.

부대로 출발하기 전, 어머니 얼굴을 보려고 쌍둥이 형이랑 둘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갔다올게.”

그렇게 어머니 얼굴을 보고 돌아서려 하는데, 그동안 의식없이 누워만 계셨던 어머니의 나지막하고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쌍디야! 단디해라.”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친구들의 배웅 아래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오니까, 가족의 소중함이 절실히 느껴지더군요. ‘집에 가면 어머니 모시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이제 어머니께 효도해야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훈련병 시절도 2주가 흘러가고, 그날도 고된 하루 과업을 마치고 취침하려고 누워있는데, 동기가 와서 말했습니다.

“야! 너 소대장님이 형이랑 소대장실로 오래.”

“왜?”

“몰라. 빨리 니 형이랑 가봐.”

그렇게 우린 소대장실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소대장님이 담배가 금지된 훈련병인 우리에게 담배를 하나씩 주더군요.

“자, 피워라.”

“아닙니다. 편찮습니다.”

형이랑 전 의아했지만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피워 임마. 편찮아.”

소대장은 머뭇거리는 저희 손에 담배 한 개비씩을 쥐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흐르고, 소대장이 입을 여는 순간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희 모친…음…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휴… 너희 입대하던 날 돌아
가셨다.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편지를 보내셨다. 너희가 적응을 하고 나중에 알
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조금 늦게 얘기하는 거다.”

그날 하루를 뜬눈으로 보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고, 믿을 수도 없었지요.
“단디해라.”

그 말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니 그 전에도
병원을 자주 오갔기 때문에 그날도 금방 일어나실 줄 알았거든요. 훈련을 받는
데 어찌 그리 눈물이 나던지요. 무거운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할 때도, 아침에 일
어나 구보를 할 때도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군요.

어느 날, 가만히 앉아 교육을 받고 있는데, 조금 떨어져 앉아 있던 쌍둥이 형
이 옆의 동기들을 통해 전달, 전달해 자기 수양록을 저에게 주더군요. 수양록을
열어보니 작업 가서 얻어온 건빵 몇 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니꺼는? 니는 못나?”

“어, 난 못따. 빨리 숨기라.”

건빵을 몰래 손에 쥐고 생각 없이 수양록을 넘기다가 전 눈물을 펄펄 쏟고 말
았습니다.

“야! 왜 그러냐?”

“재, 왜 저래?”

동기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리더군요. 그 수양록에는 ‘엄마! 그동안 저
희삼 형제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걱정은 하지 마시고 좋
은 곳에 가서서 편히 쉬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게 흘러 훈련병 시절이 끝났으나 군부대 사정
으로 100일 휴가가 미뤄져 한참 후에야 휴가를 받아 어머니 산소를 찾을 수 있
었습니다.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역을 하게 되어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집안 물건들은 빨간 딱지가 붙어 있더군
요. 매일같이 빚쟁이가 찾아와 아버지는 딴 곳으로 피신해 계셨고, 큰형은 다니
던 직장 컨테이너에서 먹고 자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쌍둥이 형이랑 둘이 아파트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찾아올까봐 항상 불
을 끄고 커튼을 치고 조용히 TV를 틀어놓고 지냈지요.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소
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고, 혹시나 우리 집에 찾아오는 빚쟁이가 아닐까 하
며 까치발로 현관구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가 아파트도 빚쟁이들에게 넘어가는 바람에 도망치
듯 새벽에 쌍둥이 형이랑 트럭을 빌려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와 같이 사업하던 분과 아버지를 따라서 은행과 제2금융권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도장 찍어주고, 적으라면 적어주곤 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거 뭐하는 거예요?”

“어, 아버지가 알아서 다할게. 신경 쓰지 말고 도장만 찍어.”

그때 돈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아버지가 하는 일이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지
생각했어요. 그게 저희를 그렇게 힘들게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
버지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의 부모님에까지 찾아가 돈을 빌리셨더군요. 그 후
그 친구랑은 의절을 하게 되었고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찍었던 도장들, 즉 대출금이랑 보증이 잘못되어 쌍둥
이 형이랑 저까지 빚쟁이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 금액이 연체가 되고,
이자가 붙고 해서 자그마치 2억 원이 되더군요. 겨우 22세에 우린 신용불량자
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 일을 하게 되면 바로 차압이 들
어와 웬만한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됐어
요. 그래서 차압도 안 들어오고, 현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요. 먼저 우
린 보증금 30만 원에 월 10만 원짜리 지하 쪽방을 구하고, 밤에 웨이터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한겨울에도 보일러 한번 안들고, 아침은 밥만 해서 비닐 팩에 싸들고 가게로 나가 컵라면에 밥 말아먹고, 생일인 사람이 있어 케이크를 남기면 형 주려고 싸 들고 오고, 손님에게 팁을 받으면 쓰지 않고 꼬박꼬박 돼지저금통에 넣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돈을 모으게 되고 방앗간을 하는 사촌형의 권유로 방앗간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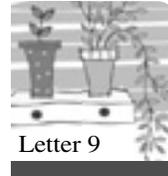
몇 년 뒤, 저희 이름을 내건 방앗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떡을 만들어 번 돈으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친구 부모님에게 빌린 돈까지 다 갚고 지금은 그 친구와도 연락을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저희는 거의 9년 만에 저희 이름이 찍힌 통장을 가지게 되었어요. 은행을 나서면서 몇 번이나 통장을 열어보고 이름을 확인했는지 몰라요.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이제야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요.

지금 저희는 방앗간이 어려워 가게를 접고 둘 다 같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이고, 비록 내 통장 잔고가 200만 원도 안 되는 돈밖에 없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힘이 나네요. 앞으로 정규직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일하려고요.

힘들게 사시는 많은 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살다보면 좋은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더 좋은 날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쌍둥이 형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평소엔 무뚝뚝해서 대화도 잘 안하는 형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그런 많은 일들을 겪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내가 있어서 많이 힘이 되었고, 위안이 되었다. 이런 힘든 일들을 돌이 잘 견뎌 내라고 하늘에서 너와 나를 같은 날에 보냈는지도 모르겠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서로 힘이 돼서 지금처럼 잘 헤쳐 나가자. 그리고 잘 살자.” ♥



베트남에서 온 프영 씨

● 글_박윤재 |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

나 는 다문화가정 돌봄이 교사로 이주여성가정을 방문해 한국어·요리·컴퓨터 등을 가르치며 그들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주여성과 고민을 나눌 때도 있고, 친구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함께 사는 가족 분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경사진 산꼭대기를 오르며 프영(노티 프영) 씨를 만나러 가는 날이면 애잔한 드라마를 보는 듯, 웬지 나의 가슴 한쪽이 싸하게 쓰러온다. 신장 145센티미터의 작은 키에, 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왜소한 체격 탓만은 아니다.

베트남에서 온 지 1년여, 22세의 프영 씨는 6개월 된 아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모유를 먹는 아이를 쳐다보다가 잠시 고개를 들 때, 약간 인상을 찌푸리는 듯 힘없이 눈을 치켜뜨는 모습이 꼭 현기증을 느끼는 것 같았다.

“프영 씨, 아침식사는 하셨어요?”

“아침, 안 먹어요. 우리 베트남, 아침식사 안 해요.”

프영 씨 말에 옆에 앉아 계시던 프영 씨 시어머니께서 “아는 저거 나라에서 만날 두 끼밖에 안 먹는다고 아침을 통 안 묵소. 아침도 좀 묵고, 뭘 좀 잘 묵으면 좋을 낀데 말이요” 하며 안타까워하셨다.

그래도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침 10시가 지난 시간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다니! 그때부터 나와 두 시간 정도 한국어 수업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졸졸 굶다가 아이에게 또 젖을 먹일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닌가.

“프엉 씨, 시어머니 말씀 들으세요. 거기서 아침을 안 먹었다고 해서 계속 그러면 안 돼요. 프엉 씨는 지금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잖아요. 세 끼 식사도 꼭 챙겨 드셔야 하고, 영양이 있는 간식도 중간에 챙겨 드셔야 아기도 건강하고 병치레도 잘 안 하는 거예요. 건강한 아기를 위해서라도 식사 꼭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아셨죠?”

시어머니와 내 눈치를 살피며 프엉 씨가 가느다랗게 대답했다.

“네, 선생님.”

“저는요, 모유 먹일 때 얼마나 배가 고프던지 미역국으로 밥 다섯 끼씩 먹었어요. 그래야 견뎌낼 수가 있더라고요. 프엉 씨, 지금 가서 간단하게라도 요기 좀 하고 오세요.”

내 말에 프엉 씨 시어머니도 한몫 거드셨다.

“그래라, 아가. 뭘 좀 먹고 오나라. 글고 선생님 차도 한잔 내 오고.”

“네.”

왜소한 프엉 씨는 다소곳하게 고분고분 말도 참 잘 들었다. 프엉 씨가 부엌에 나간 사이 프엉 씨 시어머니께서 속삭이듯 내게 말씀하셨다.

“저 아가, 밖에 나가서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다가 도망갈까 그기 겁이 나요. 내가 다리가 아파 많이 못 걷고 해서 살림을 맡기려고 해도 달아날까 싫어 돈도 못 맡기겠소. 좀 더 있다가 살림을 맡기기는 할 텐데, 내가 죽고 난 뒤라도 우리 애들이랑 잘 살아줘야 할 텐데...”

74세 되신 시어머니는 태산같이 걱정을 하고 계셨다. 이해가 되었다. 그리고 딱했다.

79세 되신 프엉 씨 시아버지는 편찮은 몸으로 콜록거리며 골방에 누워 계셨고, 다리가 편찮다는 74세 되신 시어머니는 이 막내아들(프엉 씨 남편)이 벌어 오는 150만 원가량의 월급으로 다섯 식구가 생활하는 아주 딱한 처지였다.

이런 처지에서 프엉 씨 남편은 프엉 씨 나이의 두 배에서 한 살 더 많으니, 어



린 프엉 씨한테 그 자잘한 살림살이를 못 맡기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프엉 씨같이 착한 사람이 도망을 가다니요. 어르신께서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겠어요. 걱정 마세요.”

나는 어르신을 안심시켜 드리느라 잠시나마 애를 썼다. 그리고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면서 프엉 씨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

‘리’(리음) 발음이 잘 되지 않고 어눌한 말투에 틀린 낱말을 많이 쓰는 프엉 씨와 한국어 공부를 마치고, 나는 딸 같은 프엉 씨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들어주고픈 생각에 대화를 시작했다.

“프엉 씨, 제 딸도 프엉 씨 나이예요. 제 딸 같고 친구 같은 프엉 씨한테 내가 편한 얘기 상대였으면 좋겠어요. 엄마라고 생각하고 고민도 좋고 뭐든지 편하게 얘기하세요.”

“선생님, 베트남을 떠나 여기 왔을 때, 몇날 며칠을 울었어요. 베트남에 다시 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안 울어요. 고향에서 일 많이

하고 고생하시는 부모님이 불쌍해요.”

정든 가족을 떠나 낯선 타국으로 시집을 와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또래인 내 딸의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눈에 이슬이 맺히는 프영 씨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래요, 이젠 울지 마요. 씩씩하게 잘 살아야죠. 그게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신랑 월급으로 프영 씨가 사고 싶은 것도 사면서 돈을 관리하고 싶죠?” 하고 물었더니, 프영 씨는 손사래를 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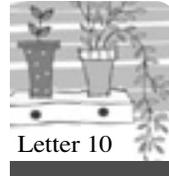
“아니예요, 아니예요. 우리 베트남 사람 보면 생활비를 많이 썼다고 때리고, 부수고 하는 사람 있어서 생활비 관리 안 하고 싶어요. 과일하고 반찬값 이런 거 많이 많이 올랐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그 돈을 어디 썼냐고 이해를 못해서 싸울 것 같아서 싫어요.”

“그래도 프영 씨,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남편한테 말하세요. 그리고 약간이라도 돈을 받게 되면, 무엇을 얼마에 샀다는 영수증과 가게부를 써서 보여주면, 프영 씨를 믿고 돈도 계속 주고, 살림도 맡길 거예요.”

내 말에 프영 씨는 “네, 선생님” 하며 떠듬떠듬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려 애썼다.

다음 시간에 만날 것을 약속하고 프영 씨의 배웅을 뒤로 하고는 꾸불거리는 비탈길을 혼자 내려오면서 나는 그때서야 껴끼이 눈물을 쏟아냈다. 착하다 착한 내 딸인 것만 같아, 어린 나이에 타국으로 시집을 와서 얼마나 외롭고 답답한 시간이 많을까 싶어서 말이다.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통역 일을 하고 싶다는 그녀의 꿈이 빨리 실현되길 빌어본다. 왜소한 체격에 아이 젖을 먹이라, 집안일 도우라 힘들어 보이는 그녀에게 잠시나마 말벗이 되고 친구노릇을 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배달원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 글_김영섭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25세의 대학생입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조그마한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통학을 하는 저는 주말 저녁에는 부모님을 도와드리고자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곤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며칠 전, 배달 일을 하고 싶지 않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부슬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기에 저는 평일이기는 했지만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게에 나가 비옷을 입고 오토바이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배달하는 사람들에게는 비 오고, 눈 오는 날은 정말 최악입니다. 특히 저처럼 안경을 쓴 사람은 더욱 그런 날을 피하지요. 그렇게 한참 가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한 통의 주문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〇〇치킨입니다.”

“여기 〇〇번지 2층집인데요. 후라이드 치킨 하나 갖다주세요. 무 두 개 주시고요, 쿠폰이에요.”

전화가 끊겼지요. ‘비오는 날 쿠폰이라...’ 물론 그만큼 저희 가게를 이용해 주셨기에 쿠폰을 다 모으신 것이지만 하필이면 비오는 날 쿠폰만 덜렁 사용하신다니 알미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주문받은 치킨을 조리해 배달을 갔습니다.

“(똑똑) 치킨 왔습니다.”

잠시 후, 중학생쯤 돼 보이는 여학생이 쿠폰을 들고 현관으로 나오더군요. 쿠폰을 받고 치킨을 건넌 뒤 쿠폰을 세는데... 쿠폰이 6장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12장에 1마리 서비스입니다. 나머지 6장은 저희가 저번 달에 고객사는 행사로 했던 이벤트 경품쿠폰이었습니다. 그때 치킨 한 마리를 사기엔 치킨쿠폰 하나와 경품쿠폰 하나를 나눠드렸거든요.

치킨쿠폰이 10장만 되었다라든 사장님 아들의 권한(?)으로 그냥 드리려고 했는데, 6장은 정말 안 되겠다 싶어 “이건 경품쿠폰이지 치킨쿠폰이 아니다”고 학생에게 이야기해줬지요. 학생은 당황했는지 어리둥절해 하며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 이거 쿠폰 아니래!” 하고 거실에 대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아니, 아니긴 뭐가 아니야!” 라는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함께 이주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표정을 보니 얼굴에 ‘나, 짜증났어’ 라는 말이 쓰여 있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버릇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배달도 2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고객 분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일일수록 더욱 공손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주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몰라요. 나한테는 이것도 쿠폰이라고 했으니깐 닭 줘요” 하며 전혀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럴수록 이주머니는 짜증을 내며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도 배달을 가야 했기에 이주머니께 티협책을 제시했습니다.

“저, 이주머니 이제까지 다른 분들은 그런 오해를 하신 경우가 없는데요, 이주머니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저희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이니, 3,000원만 더 주시면 치킨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자 이주머니는 갑자기 막 화를 내며 “내가 거지도 아니고 그것 만 몇천 원짜리 치킨 먹으려고 이따위 이야기를 들어야 해? 배달이나 하는 주제에 어디

서 흥정을 해! 됐으니깐 가져가!” 하고 말하더니, 확인을 위해 가져갔던 쿠폰을 바닥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고 했지만 저는 쿠폰이 뿌려지는 것을 본 후에 너무 화가 나고 황당해 주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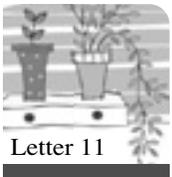
그렇게 이주머니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현관에 널려 있는 쿠폰들을 손으로 주워담았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분하고, 속이 상해 그냥가버리고 싶었지만 우리 가게의 소중한 쿠폰을 그런 집 현관에 뿌려져 있게 하고 싶지 않아 이를 물고 참으며 쿠폰을 모두 주웠습니다.

쿠폰을 모두 주워들고 나오니 킁킁한 하늘에선 비가 주룩주룩 내리더군요. 다시는 배달을 하고 싶지 않아 오토바이 손잡이조차 잡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속력을 높이며 비 내리는 거리를 질주하다보니 ‘아! 이제까지 우리 어머니·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으시면서 나를 공부시키셨구나. 나는 이제 겨우 한번 이런 일이 있지만 부모님께서 10년 장사를 하시면서 더 속상하셨을지도 몰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와서 부모님께는 대충 둘러대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루 일을 마감했습니다.

‘이주머니! 배달원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배달원이기 전에 어느 가정의 소중한 가장이고, 어느 집의 귀한 자식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





서울대 가라고?

● 글_윤종분 | 서울서 관악구 봉천동

얼심히 살다보니 주위 사람들로부터 ‘참 부지런하고 똑소리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소리를 듣고 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남편이요, 그 두 번째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녀석입니다. 하루는 제가 그랬죠.

“아들, 너도 대학에 갔고, 엄마도 못한 공부나 한번 시작해볼까?”

“엄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했어? 해봐요, 공부 좋지요, 좋지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던졌는데, 아들녀석의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들이 제 욕심만큼 공부를 안 해 무던히도 속을 태우더니만 그래도 배움의 꿈은 있구나 싶은 게 새삼 듣듯하게 의지가 되더군요.

하여 아들의 응원에 용기를 얻어 중·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으로 처음 학원에 등원하는 날, “아들, 엄마 다녀오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엄마. 있지, 친구들과하고 싸우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꼭 물어보고 공부 열심히, 열심히 하고 와” 하더라구요.

‘어! 이 말은 내가 아들녀석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내내 해주었던 당부의 말인데, 녀석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이야.’

피식 웃음이 나오면서 뭐 과히 싫지가 않더군요. 그런데 이건 느물느물 들이대는 아들녀석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이 50에 시작한 공부가 마음만 앞섰지 호락호락하지가 않더군요. 아들녀석의 도움을 안 받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요.

“아들, 이것 좀 봐줘봐. 왜 답이 안 나오냐?”

“에헤헤. 이 쉬운 문제를 모른다고요. 가만 이것, 이 문제 어제든 내가 열번을 토했던 거잖아?”

“그러냐? 근데 왜 하나도 기억이 없지.”

“복습을 해야지. 노력을 해야지요. 노력 안 하고 밥 먹으려고 하면 도둑놈 심보라며...”

“아들, 내가 너처럼 공부만 하나? 직장도 나가야 되고 집안 살림도 해야 하고...”

“아이 왜 그러서. 그 어떤 핑계도, 변명도 용서가 안 된다며? 엄마가 매일같이 쓰던 말인데, 기억 안나?”

“알았다, 알았어. 너 좀 가르쳐준다고 엄마를 쥐 잡듯이 잡는 거 알기나 아냐?”

“나도 ‘찍’ 소리도 못 냈거든요.”

“됐다, 됐어. 엄마가 혼자 한다.”

너저분하게 늘어놓는 아들녀석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혼자 책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꼭 막힌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저는 머리 좀 식히겠다고 텔레비전을 켜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옆에 와서는 “아하, 벌써 다 했다고요. 벌써요. 이래서 되겠어요? 볼 거 다 보고, 놀 거 다 놀고 어느 세월이에요” 하며 텔레비전을 딱 끕니다.

“TV리모컨은 당분간 압수예요 압수.”

“아들, 알았어. 알았다고, 조금만. 그 애 누구냐. 방금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

는지 그것만. 그 연속극만 보고 내 한다. 한다고.”

이렇게 매일같이 아들녀석과 입씨름을 하면서 갖은 구박을 다 받아가면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합격했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이 그렇더군요.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렵지, 시작을 해놓고 보니 자꾸 욕심이 생기면서 대학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의지할 데는 아들이라고 “아들, 엄마가 대학도 가고 싶은데 어디 야간에 엄마가 다닐 만한 대학교 없을까?” 했더니, 이 녀석이 갑자기 손뼉을 탁 치며 그러는 겁니다.

“맞다. 대학교가 있었네. 엄마가 꼭 가야 할 대학교가 있다, 있어.”

“어딘데?”

“서울대학교!”

“뭐라고?”

“뭘, 멀리서 찾으려고 해 수고스럽게. 집 앞에 바로 대학교를 놔두고, 엄마, 봐봐. 차비 안 들어가지, 시간 절약되지, 알아볼 것도 없어. 서울대학교가 딱이야, 딱. 아이 왜 그러서. 나한테만 서울대학교에 가라고 뉘달하지 말고 엄마가 한번 가봐. 죽어라 하면 다 된다며. 엄마가 죽어라 해서 서울대학교에 가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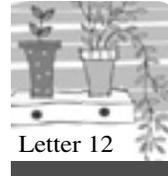
“너, 그래서 갔나?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엄마가 가봐. 엄마라도 가서 소원을 풀어야지...”

“그래, 간다. 서울대학교에 간다고. 뭐 가면 되지.”

차곡차곡 접수해놓고 하나하나 꺼내 쓰는 아들녀석이 서운하기도 하고, 의기소침해서 대학이고 뭐고 잠시 접어두고 있던 어느 날, 아들녀석이 웬 쪽지를 손에 꼭 쥐어주더군요.

‘엄마, 쉽지만은 않지요? 그래도 최고였어요. 3일 동안 알아본 거예요. 부동산과나사회복지 공부하고 싶다고 했죠. 우리 집과 교통편을 고려해 대학교 몇 군데 적었어요. 이 중에서 생각해 보세요. 파이팅!’ ♥



퇴짜맞은 생일선물

● 글_이완수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저희 어머니는 온갖 시련과 가난 속에서도 사랑과 헌신으로 저희 8남매를 훌륭히 키운 전형적 현모양처이자 시골 노인이십니다. 대부분 시골 노인들이 그렇듯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땐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아들 집으로 가지겠다고 약속을 하고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면 합치겠다”며 고향을 떠나지 못하는 분입니다.

8남매를 훌륭히 키워주신 87세의 어머니이기에 그동안 생신·환갑·칠순 등 특별한 날에 자식들에게 받은 반지·목걸이·팔찌·노리개·행운의 열쇠 심지어 연세에 어울리지 않는 발찌 등 많은 선물을 받으셨고, 시골 노인답게 무질서하게 보관하지만 우리가 모일 때면 하나하나 꺼내 보이며 누가 언제 무슨 일로 사온 것이라고 일일이 설명하며 아련한 추억에 젖어 행복해 하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시골마을이 다 그렇지만 특히 열다섯 가구밖에 안 되는 우리 마을은 큰 일이 생기면 남녀노소가 모여 음식 등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이 관습이자 품앗이인지라 고령인 어머니도 하루종일 일손을 돕고 집에 돌아와 보니 잠가놓았던 현관문은 유리창이 깨진 채 열려 있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무서워 동네사람을 불러 함께 방에 들어가 보니 어머니 일생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겨 있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들이 들어 있는 보



석함이 보이지 않자 주저앉아 낙심해 통곡하는 사이 동네 젊은이가 도난신고를 했고, 초상난 동네에 경찰차까지 동원되어 수선을 떨며 조사를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지요.

그 후로 연세답지 않게 명랑하고 활기차던 어머니의 모습은 사라지고 항상 웃던 입을 굳게 닫고, 때론 허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중얼하시는가 하면 낯선 사람은 물론 대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도둑으로 의심하는 심각한 우울증까지 생기셨습니다.

증상이 심할 땐 자식까지도 의심하다가 스스로 깜짝 놀라곤 하셨습니다. 특히 가장 서운해 하는 것은 아버지와 결혼할 때 받은 은반지였지요. 금반지는 커녕 결혼사진 한 장도 없던 시절이라 그 은반지는 어머니와 희로애락을 함께한 물건이라 평소엔 절대 빼지 않던 귀하고 귀한 반지였지만 연세가 드셔서 살이 빠져 혈령해진 터라 상가 음식을 만들다 혹시 빠지거나 잃을까 걱정되어 빼놓고 가신 것이 그만 어머니의 추억까지 모두 잃어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사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기 위해 외식이나 여행은 물론 손자들 재롱잔치까지 별일을 다해 보았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도무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삶 자체를 포기하려는 듯한 섬뜩한 말씀까지 서슴지 않는 심각한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던 우리 8남매는 사건 후, 어머니 생신 때 어머니의 짝퉁 결혼 은반지와 각종 패물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처음엔 좋아하시는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헤어질 때쯤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정성은 곱게 받으며. 그러나 이 패물들을 집에 놓고는 한시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으니 내가 주는 선물로 생각하고 각자 도로 가져가거라” 하시며 미안한 듯 씩씩한 듯, 아련한 미소를 띠시더군요.

금방이라도 웃을 듯, 금방이라도 통곡을 할 듯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던 생전 처음 본 어머니의 얼굴은 저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생각이 짧아 어머니의 마음을 더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우리들의 생일선물은 우리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기 좋게 되짜를 맞고 말았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귀금속 선물은 사양하시며 꼭 사오려거든 혼자 들고 갈 수 없는 것을 사오라기에 아직 쓸 만한 가전제품도 신제품이 나왔다는 핑계와 반 억지를 쓰면서 바꿔드렸지만 이제 마땅히 바꿀 것도 없어 88회 생신 땐 무슨 억지를 써야 하나 걱정입니다.

이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르신, 특히 시골어르신들의 소박하고 진솔한 혼이 담긴 물건이나 농산물은 탐내지 말았으면 합니다.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아 작거나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분들에게 이 세상 그 어떤 물건보다 더 값지고 귀하디귀한 소중한 물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웃을 때 울면서 태어난 우리지만 최후의 순간에는 모든 사람이 울더라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깨끗하고 화사한 미소를 띠며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지혜로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

결혼하니, 남편 전화도 끊기네

◎그림_심경희

※ 이 만화는 애청자가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여성시대 가족인 권기영 씨는 서울 청계천에서 남편 이호민 씨와 기계부속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일을 한 지 5년입니다.



서울 청계천 세광종합상사 |
이호민 · 권기영 씨 부부

부부가 같은 일터에서 일을 하면?



문제를 하나 맡게요. 풀어보세요.

문제) 부부가 같은 일터에서 일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있는 대로 고르시오.

- ① 다들 일이 많다.
- ② 긴 산책을 자주 한다.
- ③ 주변 골목 지리에 익숙해진다.
- ④ 여성시대에 편지가 발송된다.

정답이 궁금하시겠지요? 답은 저절로 아시게 될 겁니다.

여성시대 가족인 권기영 씨는 서울 청계천에서 남편 이호민 씨와 기계부속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일을 한 지 5년. 다른 집도 그렇다더니, 권기영 씨네도 부부가 하루종일 얼굴을 맞대고 일을 하니, 크고 작게 마음 상할 일이 많습니다. 늘 권기영 씨가 지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권기영 씨가 멋있게 한판승을 거두었습니다. 평소에도 사장님과 종업원으로 지내면서 서러운 일이 많았던 권기영 씨, 그날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10미터 고압호스를 힘겹게 찍고 있는데 옆가게 사장님이 한참 지켜보더니, “이 집은 자리가 바뀌었네요. 남편한테 일자리 바꾸자고 하세요. 장부정리만 하세요” 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책상에서 장부정리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서러웠습니다. “여보, 옆가게 사장님이 우리 일자리가 바뀌었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창피해. 내 머리가 나쁜 줄 아실거야. 이제라도 가르쳐주면 안 될까?”

“에이, 우리 집 물건은 말이야, 다른 집보다 어려워져 그래.”



그 상황에서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펼쳐놓고 마주 앉았는데, 남편은 잘도 먹습니다.

“권 여사, 왜 안 먹어?”

“밥맛이 없어서.”

“이상하네. 난 365일 다 맛있어.”

남편은 아내 몫의 밥까지 다 비워 버렸습니다.

“음, 잘 먹었다. 10분 정도 잘 테니 깨우지 마.”

책상을 끌어안고 잘도 자는 남편.

그래서 권기영 씨는 평소에 모이든

중국음식점·분식집·족발집·피자가게의 스티커를 남편 등에 죽 붙여버렸습니다. 잠시 후, 물건 주문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등에 스티커가 잔뜩 붙은 걸 모르는 남편은 자전거에 물건을 싣고 가는데, 옆가게 직원이 킁킁 웃습니다. “강 부장, 내 얼굴에 뭐 묻었어?” 권기영 씨가 눈치를 주자 그 이웃은 “아니에요”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웃자, 남편은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배달을 갔고, 다녀와서는 “오늘 참 이상하네. 다들 왜 날 보고 웃지? 지나가는 택시기사 분들도 ‘아저씨 힘내세요 파이팅,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부자되세요’ 그러는데, 대체 왜 그래? 권 여사도 나 보면 웃음이 나와?” 합니다.

그날 권기영 씨는 물건을 사러온 손님마다 일단 안으로 모셔 차대접을 했습니다. “버릇, 고치려고요. 모른 척해주세요” 몇 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화장실에 간 남편이 큰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 보았습니다.

“까악! 야, 권 여사! 날 바보 만들어서 펍도 재미있겠다. 동네 창피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아이구 창피해. 이려고 동네를 누비고 다녔으니, 다들 나더러 2프로 부족하다고 했을 거야. 어휴, 권 여사, 1미터 접근금지야, 알았어?”

“접근금지시킬 거 뭐있어? 오늘부로 내가 사표내면 되지.”

권기영 씨는 퇴근시간에 직서를 써서 까칠한 남편에게 제출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과 의견이 맞지 않고 날마다 심부름이나 시키고, 굶은 일만 시키고, 월급도 주지 않으니 노동청에 신고할 겁니다. 이의 없지요?”

‘권기영 백’, 하고 도장도 찍고, 다음날 정말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도 꺼놓고, 친구 만나 영화 보고, 저녁 먹고, 술 한 잔 마시고 밤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밥상이 차려져 있고, 쪽지도 있었습니다.

‘내 안에 당신 있어. 까칠한 남편과 살아줘서 고마워. 마음 풀고 출근하길 바랄게.’

얼마나 다급했으면 결혼 후 처음으로 밥상까지 차렸을까요? 결국 권기영



● “제가 여성시대에 자주 편지를 쓰는 건, 다 남편 덕분이에요. 같이 일하면 편지 쓸 일이 많아요.”

씨는 다시 출근했고, 여전히 남편을 사장님으로 모시며 종업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 눈에도 키 크고 멋있는 몸매를 지닌 권기영 씨는 남편과 같은 일터에서 일하기 전에는 백화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은 일하던 사람을 내보내다며 권기영 씨에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다들 말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광종합상사는 배관부속품을 파는 가게라 크기별로 종류별로 나사도 많고, 외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종종 실수도 했지요.

“권 여사, 잘못했지? 눈은 액세서리로 달고 있는 거야?”

남편이 호통을 치면 아내는 무작정 밖으로 나가 청계천과 종로를 걸었습니다. 두어 시간씩 걷고 나면 속도 좀 가라앉는 것 같고, 서울 한복판의 속골목까지 훤히 알게 되는 소득도 있습니다.

“제가 여성시대에 자주 편지를 쓰는 건, 다 남편 덕분이에요. 같이 일하면 편



지 쓸 일이 많아요. 절 속상하게 해서 여성시대에 편지 많이 쓰게 해주는 남편이에요.”

부부는 오누이 같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두 분은 친구 결혼식에서 만났습니다. 이호민 씨가 친구 결혼식에 갔더니, 신부친구 중에 키가 훌쩍 크고 멋있는 권기영 씨가 있었습니다. 친구부부에게 소개시켜 달라고 졸랐습니다. 친구부부는 작전을 짜서 신혼집 정리를 도와달라고 권기영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권기영 씨가 다락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열심히 도와주고 있을 때,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가 나타나더니 권기영 씨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제 두 사람을 맺어주려는 작전인지는 몰랐습니다.

보통 키인 남편을 키 작다고 싫어했던 친정어머니는 이제는 자상한 사위라며 무척 사랑하십니다. 같은 일터에 있어보니 남편이 유머가 꽤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무조건 너그럽고 잘 챙겨 그제 마음에 들지 않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그건 좋은 면이기도 합니다. 의자든, 책상이든 사는 물건마다 구입날짜와 가격을 기록해 둘 정도로 꼼꼼한 남편이 때로는 숨막히지만 그 덕에 두 아이 공부시키며 사니 고맙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남편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을 가졌을 때부터는 밥상을 들어주기 시작했고,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쯤 설거지도 합니다. 남편이 부드러움에 속도를 높인다면 나 이룰수록 좋은 일은 늘어갈 겁니다.

군대에 간 든든한 이들과 숨씨 좋고 공부도 잘 하는 딸과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는 남편 그리고 오랜 단골손님들이 있으니 이제 권기영 씨는 화식이며 산책할 일보다는 룰루랄라 노래 부르며 산책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권기영 씨 뒤를 따라가보면 권기영 씨는 긴 다리로 우아하게 ‘흠흠 투스텝~ 흠흠 투스텝~’ 하며 포크댄스하는 소녀처럼 걷고 있을 겁니다. ♥



진정한
교사가
아이들의
변화 이끈다

기업은행 파주출판도시출장소 고객
(주)영교 조은상 회장

사교육에 대한 관심은 종종 서민가정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사교육에 대한 시선이 그리 곱지 않은 않지만 무조건적인 비판은 옳지 않다. 사교육이든 제도권 교육이든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할 문제를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식의 흑백논리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해 우수한 인재 확보가 절실한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교육이 우리나라의 국력을 키우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단초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주)영교



기업은행 파주출판도시출장소의 김태태 지행장(왼쪽)은 (주)영교 조은상 회장에 대해 교육 한 길만 걸어오신 분이라고 말했다.

의 조은상 회장 역시 제도권 교육의 틈새를 메워주는 사교육의 역할을 강조한다. (주)영교는 24년간 유아·초등 교육만 고집해온 교육전문기업이다. 과외를 금지했던 80년대에 영재수학연구회로 출발했고,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 대 일 방문형 한글 학습지를 개발해 시장을 선도했다. 특히 좌뇌와 우뇌의 발달시기에 맞춘 '두 배로 학습법'을 통한 높은 학습효과로 인기 만점인 (주)영교의 '두배로 학습지'는 유아·초등 교육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현재까지 꾸준히 인기를 모으고 있다.

90년대 후반부터는 아동서적 출판·문구·팬시·출판유통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으며, 최근 2년간 보건복지가족부 바우처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만 6세 이하 아동의 언어·인지·창의적 발달을 꾀하고 체계적인 독서지도 및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여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서비스 제도) 업체로 선정되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주)영교의 조은상 회장은 지금까지 교육 사업이라는 한 길만 고집한 외골수이다. 학습지 회사들이 회원 유치를 위해 광고에 전념할 때, 그는 이를 교사 교육비에 투자했다. 덕분에 (주)영교는 '학습지 사관학교'로 불릴 정도로 수많은 우수 교

사를 배출할 수 있었다.

“저희는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무척 중요합니다. 아이들과 선생님의 관계가 교육정책이나 교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회사 설립 초기부터 교사 교육에 힘을 많이 쏟았습니다. 아이들은 무척 민감하기 때문에 단순히 직업인의 자세로 대하면 절대 원하는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의 이러한 교육철학은 ‘두 배로 선생님’과 아이들의 남다른 관계로 증명된다. (주)영교의 회원들 중에는 학교 담임선생님보다 두 배로 선생님을 더 따르는 아이들이 유독 많다. 어린이들은 두 배로 선생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진심어린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된다. 이것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만들 수 있는 기적 같은 변화다. (주)영교에서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고, 교육적인 자부심과 긍지, 전문성을 심어주는 데 주력하는 이유 역시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조 회장이 회사 설립 초기부터 전국의 지국을 방문하며 발 벗고 뛰어다니는 현장 위주의 경영을 펼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기업은행 파주출판도시출장소의 김기태 지행장은 “아이들의 학습 실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신념이 확실하시고,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오로지 한 길만 걸어오신 분”이라고 조 회장을 소개하며, “출판단지에 기업은행이 처음으로 입점



해 현재까지 꾸준히 영업을 펼치고 있는데, (주)영교도 이곳에서 좋은 인연을 맺었다”며 신뢰와 소통으로 다져진 굳건한 관계를 자랑했다. 이에 대해 조은상 회장은 “기업은행에서 많은 부분 배려해주시고 경영 자문도 아끼지 않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답했다.

조 회장은 앞으로 사교육 시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결합한 하이엘리트(<http://www.hielite.co.kr>)를 출시한 것도 이런 배경에 기인한다. 하이엘리트는 (주)영교가 그동안의 학습지 노하우로 완성한 초등 전문 학습 시스템으로, 학습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과외의 밀착 지도, 온라인의 편리함을 두루 갖췄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의 이점과 ‘면대면 학습’을 통한 밀착관리와 학부모 학습상담이 가능한 오프라인의 이점을 결합한 상품으로 향후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엘리트는 또한 교사들이 좀 더 쉽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이기도 하다.

“학습지 교사가 힘들기 때문에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다소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교사들의 수고를 덜고, 가정주부처럼 하루 종일 직장에 매달릴 수 없는 분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영교는 이밖에도 E-러닝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공부방사업과 유치원사업 등의 신규 사업을 의욕적으로 전개해나가고 있다. 특히 24년간 쌓아온 교육 노하우를 접목한 공부방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와 함께 특목고 입학생을 위해 마련한 CSA목동학원을 향후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저희 사명 그대로 영재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영재교육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제휴해서 영재 육성에 보다 많은 힘을 쏟겠습니다.”

조은상 회장의 꿈은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데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육기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묵묵히 이 길을 걷는다.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교육이라는 오직 한 길만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그리고 강직하게 걸어간다. ♥

◎ 글_오인숙(자유기고가) | 사진_주병수

그의 성공에는 이유가 있다

조은상 회장의 성공 노하우

- ✦ **현장에 기본이 있다** : 현장은 고객접점의 공간이다. 모든 경영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자리하는 교과서와 같은 출발의 근원지다. 그 기본에서 학습하고 실천해 가는 것이 진정한 실력자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다.
- ✦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 비즈니스는 선택의 연속이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내외의 총체적인 자원을 활용하고 정확한 목표를 정해 모든 에너지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혼자가 아닌 함께** :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함께할 때 그 에너지는 무궁하다. 공유를 이끌어내라. 공유 속에서 팀의 보람과 성패의 책임감 그리고 조직력이 생긴다.

“계좌번호 불러봐”



“내 핸드폰 번호야! 어때, 쉽지?”

내 핸드폰번호 그대로 내 계좌번호가 된다!

핸드폰번호, 집 전화번호, 모임끼리 통하는 번호, 나만의 특별한 번호 내가 원하는 번호로 계좌번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 고객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편리함, 지금 만나보세요. 은행에서 만나는 감동, IBK기업은행에서 계속됩니다.

*개인 및 법인계좌 개설도 가능하며 기존 계좌와 연결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외우기 쉽게/부르기 쉽게! |내가 만드는 계좌번호 서비스|



바닥물걸레질에서 주부들을 해방시킨 획기적 제품

방수형 자동물걸레청소기 '오토비스'

물걸레 청소의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물걸레 청소기가 주부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주부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청소. 그 중에서도 끔찍하 걸레질을 해야 하는 바닥청소가 주부들



제품이 미국·독일 국제발명전 금메달에 이어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제37회 제네바 국제발명전'에서도 금메달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도 그 창의성과 디자인 및 품질을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에겐 가장 부담스럽고 하기 힘든 일이다. 그동안 이를 개선하고자 접착식대걸레부터 스팀청소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바닥 청소용구가 개발, 시판되고 있으나 여전히 주부들이 사용하기에는 무겁다거나 꺾꽂 눌러 걸레질을 해야 하는 등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힘든 바닥물걸레질에서 주부들을 해방시킨 획기적 제품이 바로 방수형 자동물걸레청소기 '오토비스'다.

'청소의 부담까지 뺏는다'는 야심 찬 의욕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5년여의 연구 끝에 탄생한 오토비스 청소기는 손걸레 방식을 응용한 획기적인 기술로 인해 최고의 신개념 바닥청소기로 우뚝 서게 되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와 품질개선 노력이 더해져 동

오토비스 청소기의 최고 장점은 1분에 900회 이상 좌우로 진동하는 모터를 이용해 손으로 바닥을 닦는 힘의 1/10만을 사용하면 서도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는 노동력의 최소화 및 청소력을 극대화시킨 '극세사 타월'을 사용해 쉽고 간편하게 찌든 때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고의 생활방수 기능을 더해 욕실이나 베란다 등에 물을 뿌려가며 청소할 수 있는 일괄 원샷 청소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또한 소비전력이 42W로 일반 청소기의 1/15밖에 되지 않는 절약형 기기인데다 소음도 적을 뿐만 아니라 작동 시 발생하는 중금속 등이 전혀 없는 친환경 웰빙 전기기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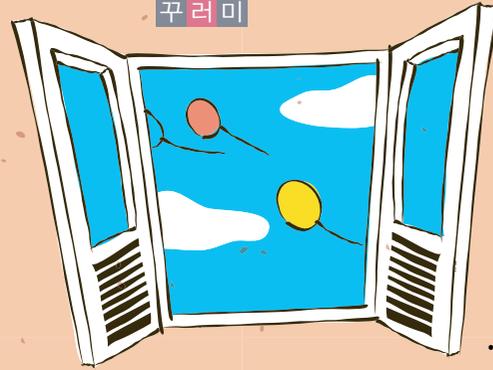
● 기업은행 영업부 고객

● 경성통신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60-5호 신명빌딩 105호

☎ TEL 02-586-9855

기업은행에서 추천하는 우량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코너로, 위촉된 중소기업의 경기 활성화에 다소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시대 꾸러미



● 내지 일러스트_ 박지현

임신에서 출산, 육아, 교육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를 기르는 이야기 <출산에서 교실까지>, 남성들의 땀과 인내 그리고 우정을 이야기하는 <장용의 단결! 필승! 충성!>, 잊을 수 없는 그 시절, 잊을 수 없는 사랑 이야기 <사랑의 계절>을 함께 만나보세요. 매주 월요일 <출산에서 교실까지>, 목요일 <장용의 단결! 필승! 충성!>, 토요일 <사랑의 계절>이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 꾸러미 하나
출산에서 교실까지
출산의 달인
엄경희 님

● 꾸러미 둘
장용의 단결
장교는 아무나 하나!
전병권 님

● 꾸러미 셋
사랑의 계절
사랑은 이메일을 타고
송은옥 님



1 꾸러미 하나
출산에서
교실까지

출산의 달인



● 글_엄경희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995년 5월 2일, 16개월 된 첫 아이를 데리고 만삭의 몸으로 둘째를 출산하러 춘천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걱정스러워하는 주위의 시선과는 달리 당사자인 저는 별로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별로 애면글면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남편한테 데려다 달라고 하기도 번거로워 “친정엄마한테 가 있다가 배가 아프면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는 친절으로 향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정일도 며칠 남아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는 아들을 엄마가 봐주니까 맛있는 거 맘껏 해먹으며 편히 보냈습니다. 그러던 5월 5일 어린이 날 아침 7시쯤, 첫 진통이 살짝 느껴졌습니다. 남편한테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금방 갈게.”

그래서 저는 ‘뭐 좀 있다가 오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라 그런지 예상보다 진통이 자주, 그리고 많이 왔지만 내가 아프다고 지나치게 내색을 하면 아들을 데리고 애쓰시는 엄마가 걱정할까봐 이쪽 방에서 끙끙거리다 너무 아프면 또 저쪽 방에 가서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다시 이쪽 방으로... 좀 돌아다니면 덜 아픈 것 같아 왔다갔다 하면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에서 춘천까지 한 시간 반이면 충분히 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낮 2시가 지나고 1시가 지나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엄마는 아들을 업고, 난 출산준비물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 5층에서 3층까지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제야 노란 프리지아한 다발을 들고 터벅거리며 계단을 올라오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태평하게 계단을 올라오는 걸 보니, 속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 더 이상 내려가지도 못하고, “엄마! 화장실, 화장실” 하고 소리치며 도로 계단을 올라가는데, 느낌이 그 느낌이 아닌 것이 아기가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엄마, 엄마, 얘기 나오려나봐.”

엉금엉금 방으로 기어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 앞에서 정신이 없기는 엄마도 마찬가지일 텐데, “걱정 말고 나오면 낱자. 내가 너희들 여섯 다 낳았잖아” 하고 큰소리를 치며 얇은 이불을 깔아주셨습니다. 엉거주춤 이불에 올라앉으며 얼떨결에 힘을 주니까 정말로 아기가 쑥 나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힘을 막주거든요.

막상 아기가 나오니까 나는 마음이 편해졌는데, 엄마하고 남편은 당황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는 덩치 큰 아들을 포대기로 등에 업은 채 땀을 뻘뻘 흘리고, 등 뒤에 업힌 애도 소란이 낫는지 소리치며 울고, 남편은 무선 전화기를 내턱 밑에 들이대며 “구급차 어디다 부르는 거야” 하고 날 다그치고...

그때 전 알 수 없는 침착함으로 상황을 파악하고는 제 출산 뒤처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엄마! 엄마는 승혁이부터 저쪽 방에 내려놓고 오시고요. 당신! 당신은 애가 나왔는데 구급차를 불러 뭐하게? 빨리 물 데우고 가위 찾아서 소독해요.”

뭐 그 다음은 애를 여섯이나 낳았다고 큰소리치신 엄마가 태블을 실로 묶어 남편한테 자르게 하고, 방바닥에 조금은 생똥맞게 내동댕이치다시피 한 아기 얼굴을 깨끗이 닦고 보니 빼꼼하니 날 쳐다보는 아이 눈빛과 미주쳤어요.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안정을 찾은 뒤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당신이 애 낳고 나서 꽃다발 받고 싶다고 했잖아!”

첫에 출산 때 18시간 진통을 너무 잘 참다가 병원에 가자마자 낳는 바람에 바로 퇴원했습니다. 원래 건강한 체질이라 입원을 해본 경험이 없던 저는 연약한 모습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 병문안을 받아보고, 꽃바구니나 꽃다발 그런 거 꼭 한 번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둘째 임신기간 동안 그 이야기를 몇 번 했더니, 원래 남편 체질이라 남편이 이 일 저 일 챙기고 꽃다발까지 사오느라 늦었다는 하더군요.

아무래도 다 좋았습니다. 첫에는 너무 크게(4.2킬로그램) 낳아 억센 사내아이가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둘째는 자그맣고 예쁜 딸을 낳았으니 남편 느린 거, 엉뚱한 거, 그런 거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주위에서는 애 쉽게 낳는다고, 애 낳는 게 체질인 것 같다고 놀려댔지만 저는 신이 났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데, 태어난 병원을 적는 칸에 집에서 분만했다고 기재했더니 주민센터 직원이 놀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고 큰소리로 말해 좀 창피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도 조금 나왔습니다. 병원비 지원인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태어난 둘째가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고1 아들, 중2 딸, 셋째가 초등학교 2학년. 대한민국에서 아이 셋을 교육시키며 맞벌이하는 엄마로 살아가는 거, 참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제가 감당하기에 합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예요. 감사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



장교는 아무나 하나!



● 글_전병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저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 출신입니다. 2001년 7월, 대한민국 육군 학사장교 38기로 경북 영천 3사관학교에 입교하였습니다. 마침 그날 비가 내려 쫄쫄 맞고 온몸이 흠투성이가 되어 생활관에 도착해 정신없이 군용보급품을 지급받았습니다.

다들 영성하게나마 군복을 착용하고 강당에 모여 대장님께 신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뒤늦게 한 친구가 한 손에는 고무링, 또 한 손에는 전투화끈을 들고 영성한 차림의 복장으로 강당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귀관은 뭘데 지금 오나? 그리고 복장은 그게 뭐야!”

“그게 말입니다요. 신발끈 하고 말입니다요. 이 고무줄하고 말입니다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요.”

“휴! 저런 게 무슨 장교가 되겠다고. 똑바로 못하겠나!”

“시정하겠습니다.”

“귀관은 어디서 그런 말투를 배웠는가? 원래 말투가 그래?”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요. TV <동작 그만>에서 배웠습니다요.”

알고 보니 그 친구, 군대 오기 전에 나름대로 군에 대한 연구와 연습을 조금 했나봅니다. 군대 용어는 ‘다, 나, 까’ 로 끝나는데, 자기 짤에는 더욱 공손하게 ‘다’ 에다 ‘요’ 까지 붙여 존칭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시정하겠습니다’ 라는 용어는 안 쓰는데, <동작 그만>이라는 코미디 프로를 보고 그게

군에서 쓰는 말투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누군가 그랬죠? 장교는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딜 가나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친구는 첫 인상을 실망시키지 않고 여지없이 고문관 노릇을 했습니다. 처음 군대에 가면 제식을 기본적으로 배우는데, 이동할 때 무조건 큰 걸음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왼손과 왼발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행렬 간에 발을 잘 맞추어 절도 있게 이동해야 하는데, 그 친구만 항상 남들과 다르게 행동해 우리 소대는 항상 얼차려를 받아야 했습니다.

걸음걸이가 안 되는 이 친구, 다른 생활도 잘할 리가 없었겠죠? 장교는 저녁에 매일 간식이 지급되는데, 지급되는 음식은 무조건 그 자리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 친구는 간식을 나중에 배고플 때 먹으려고 ‘짱’박아 놓고 점호시간에 걸려 단체 기합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한두 번 걸리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고집이 센 건지 머리가 나쁜 건지 거의 매일 간식을 ‘짱’박아 단체 생활과 연대 책임이라는 이유로 매일같이 얼차려를 받아야 했습니다.(참고로 그 친구는 서울 명문대 법학과 출신입니다.)

저는 대학원을 다니다가 입대를 해 동기들보다 세 살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더욱 그 친구가 동생 같아 잘 챙겨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무리 잘 챙겨줘도 그 친구의 어리바리한 행동은 과연 장교로 임관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죠.

한번은 화생방 훈련을 하는데, 도중에 그 친구가 갑자기 계거품을 물고 온 몸을 달달 떨면서 쓰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훈육장교와 저희는 놀라 달려갔고, 만일을 대비해 대기하고 있던 군의관의 응급처치를 받은 후,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쓰러진 이유는 훈련 전 방독면을 수입(청소 및 손질)하라는 지시에 방독면과 정화통을 빨래하듯 세탁한 겁니다. 정화통이

물에 흠뻑 젖어 공기조차 들어올 수 없었던 거죠. 방독면을 써도 숨쉬기 힘든데, 공기가 안 통하는 방독면을 쓰고 가스실로 들어갔으니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죠.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8월이 되었습니다. 문제의 그날도 무더운 날씨였는데, 우리는 독도법을 익히기 위해 교육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영천 훈련장은 매우 먼 거리에 있고, 학사장교는 기타 장교 교육보다 단기간에 많은 군사 교육을 해야 하기에 일정이 매우 빡빡했습니다.

어쨌든 아침 일찍부터 폭폭 찌는 더위와 함께 소대별로 지도와 나침반을 이용해 독도법 훈련을 하였는데, 훈련도중 그 친구가 “저, 형 나 가스조절기 잃어버렸어” 하는 게 아닙니까? 안 그래도 어리바리한 그 친구는 더위 때문인지 소총의 가스조절기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우리는 그 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으나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가스조절기 때문인지 정신을 놓고 더욱 어리바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동안 수많은 사고를 쳤던 전과가 있었던지라 한번만 더 실수를 하면 퇴교를 당할 거라는 경고를 받은 상황이었기에 ‘이 한 몸 희생해 그 친구의 퇴교는 막아보자’는 심정으로 제 가스조절기를 그 친구한테 빼주었습니다. 어리바리하지만 마음은 착했던 그는 “형! 이거 나주면 형은 훈육 장교님께 혼나고 외박도 잘리잖아” 하기에 저는 그를 안심시켜주려고 “걱정하지 마, 이번 외박 때는 여자 친구가 일이 있어 못 온다고 하더라. 어차피 외박 안 나가려고 했다”고 그를 달래며 계속해 훈련을 받았고, 야간 독도 법까지 무사히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우리는 훈육장교의 지휘 하에 인원·장비 검사 및 보고를 했는데, 대열의 끝에 있던 그가 갑자기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저, 저 기요. 제 소총이 없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까? 다급하게 훈육장교가 그에게 달려가 “야! 소총을 언제 어떻게 잃어버렸어!” 하자 그는 “잘 모르겠어요. 아

까 점심 먹을 때까지는 있었는데, 그 후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온 부대는 발각 뒤집혔고, 우리는 씻지도 못하고 다시 그 야간에 소총을 찾으러 훈련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3사관학교 전 장병이 그 밤에 소총을 찾기 위해 훈련장을 이 잡듯이 찾아 헤맸습니다. 그가 소총을 잃어버릴 줄 알았으면 제 가스조절기는 주지 말 것을... 전 그가 소총을 잃어버리는 대형 사고를 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장병들의 고생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날 소총을 찾지 못했고, 바로 기무사와 헌병대가 투입됐습니다. 다음날도 전 장병은 소총 찾기를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지만 무더위에도 소총 찾는 일은 계속됐습니다. 시간만 되면 우리는 총을 찾으러 산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총 찾는 일이 슬슬 짜증이 났기에 다들 대충 찾는 척했는데, 그중에서도 부대 최고의 뺨질이로 소문난 친구는 투덜거리며, “나는 저쪽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을 테니, 그그들은 계속 찾아라” 하면서 나무 그늘 쪽으로 갔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총을 찾아야 이 고생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으로 총 찾기를 계속했는데, 저쪽 나무 그늘에서 누워있던 뺨질이 친구가 갑자기 “총, 찾았다” 하며 흥분된 목소리로 소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독도법 훈련 중 더위를 피하려고 나무그늘에서 쉬다가 소총은 내려놓고 몸만 나온 것입니다.

그 후 뺨질이는 소총을 찾아 영웅이 되었으며, 소총 분실사고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나고요? 안타깝게도 그 사건 이후 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장교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일반 병사로 군복무를 했겠지요. 그 후 연락할 길이 없어 연락이 끊겼지만 우리의 고문관, 많이 보고 싶네요.

“지금은 잘살고 있나? 나, 네 덕분에 가스조절기 분실한 걸로 외박 금지 받았다. 언제 한 번 만나면 술이라도 한 잔 사야지. 형이 많이 보고 싶구나!” ♥



사랑은이메일을 타고



● 글_송은옥 | 광주시 북구 운암동

일 마 전 메일함을 열었더니, 영문으로 쓰인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02년에 한동안 내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 이름 ‘Takatoshi’.

2002년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월드컵축구 열풍으로 온 국민이 밤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승승장구하면서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치고 있을 때, 잠시 짬을 내 더위도 식힐 겸 계곡에 발이나 담그자며 동생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계곡에서 한여름 무더위를 잠시 식히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산 중턱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고 있었는데, 동생에게 어떤 남자가 다가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 남자가 동생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동생이 무척 난감한 표정으로 웃는 게 보였고, 동생은 저를 발견하고는 도와달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동생에게 다가갔죠. 알고 보니 일본인이었는데, 영어로 동생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영어가 그리 능숙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 남자가 버스 번호를 묻고 있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남자는 “도청에 가고 싶은데,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나?”고 물었고, 저는 남자에게 도청으로 가는 버스를 손가락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남자는 “고맙다”는 말을 하더니 어딘가로 향했고, 20분쯤 지나 버스가 출발할 때쯤 나타나 제가 가르쳐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우연히도 그 남자와 탄 버스가 저희들이 가려는 곳과 같은 방향이라 저희



도그 버스에 같이 올라타게 되었어요 남자는 버스 중간쯤에 앉았고, 저와 동생은 버스 뒤쪽에 앉았습니다.

여름이라 그런지 산에 오르는 사람이 적어 버스 안은 한산했습니다. 동생과 나란히 앉아 있던 저는 문득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한번도 일본인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던 저는 그 일본인과 얘길 해 보고 싶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그 남자가 앉아 있는 바로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하이” 하고 인사를 건넸고, 그는 아까 마주친 걸 기억하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서툴지만 보디랭귀지를 섞어가며 남자에게 이것저것 물었고, 남자는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저에게 서슴없이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그는 한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축구경기를 구경하러 왔고, 어제 경기가 끝나서 오늘은 관광을 하고 내일 다시 일본으로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지도를 가지고 광주의 명소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버스 앞뒤 좌석에 앉아 지도를 펼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내려야 할 곳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쉬운 마음에 그에게 작별인사를 건넸

고, 그는 고맙다며 저에게 편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메일 주소를 적어달라며 펼쳐진 지도책을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고 내리려는데 마침 우중충한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비가 올 지도 모른다고 해서 우산을 챙겨왔던 저는 가방이러곤 허리에 찬 벨트식 가방이 전부였던 그가 우산을 챙겨올 리 만무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우산을 건네며 오늘 비 올지도 모르니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하던 남자는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고맙다며 인사하고 우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그와의 짧은 만남은 버스와 함께 떠났지만 사흘쯤 지났을 때 저는 낯선 이름의 이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Thank you for your umbrella’란 메일 제목에서 저는 그가 보낸 편지임을 알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간 그와 한국에 남겨진 저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나눴고, 그가 보낸 메일을 해석하고 다시 답장을 보내기 위해 저는 매일 새벽마다 영어학원엘 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일본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시간도 없었고, 돈도 없었던 터라 그에게 다음에 꼭 한번 가겠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바다 건너 그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반년쯤 지나 그가 독일로 유학을 간다고 메일을 보내왔고, 독일에 가서도 편지하겠다고 했지만 무슨 사정에서인지 유학을 간 뒤 그에게서 편지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의 안부가 궁금해 몇 번이나 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이 계속해 오질 않자 저도 더 이상 그에게 편지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와의 만남은 잊혀져 갔습니다.

2002년은 월드컵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와의 만남과 우정이 있었네요. 문득 그의 소식이 궁금해집니다. ♥

남매간의 우애

제 책상 뒤로 비스듬히 기운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기울어진 하늘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 덕분에 제 등 뒤는 늘 환합니다. 그날도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데, 환하던 뒤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뒤돌아보니, 비탈진 유리창으로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염없이 빗물이 흘러내리는 유리창을 통해 바라보는 밖의 풍경이 그럴 듯하지만 그날은 감상에 빠질 새도 없이, 우산도 없이 태권도장에 간 아들이 걱정돼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진아! 비가 오네. 동생 우산 좀 갖다 주세요.”

“싫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한 번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

“동생한테 우산 갖다 주는 게 싫다고 했어요?”

“네. 몸이 힘들어요. 그냥 쉬고 싶어요.”

딸은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동생한테 우산을 갖다 주기 싫다고 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비를 맞고 들어와도 좋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만약 어진이가 학원에 갔는데, 갑자기 비가 온다면 명중이도 우산을 갖다 줄까 안 갖다 줄까?”

“명중이도 안 갖다 줬을 거예요.”

“그, 래, 알았어.”

끓어오르는 화를 식이고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멍’ 하니 유리창으로 흘러내리는 빗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하는 생각에 알 수 없는 슬픔이 가슴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집에 들어왔어요.”

“그랬어요. 비, 안 맞았어요?”

“네. 비 안 와요.”

“알았어요. 학교 숙제부터 하고 놀아요? 끊어요.”

길게 전화할 기분이 아닌지라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기적인 딸의 반응이 너무 실망스러워 손에 일도 안 잡혔습니다. 지금까지 딸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좀 짜증을 부리긴 해도 항상 “네, 아버지” 하며 말을 잘 듣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존댓말을 가르쳤고, 부모님에 대한 호칭도 ‘엄마·아빠’가 아닌 ‘어머니·아버지’라고 할 만큼 좀 ‘클래식’하게 키웠습니다. 특히 남매간의 우애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사실 형제들이 많은 시절이야 서로 아웅다웅,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키우기도 하면서 형제 중에서도 유독 친한 형제도 있지요. 하지만 요즘은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많아야 둘, 아니면 하나 아닙니까. 셋 이상이면 능력이 많다고 우러러보는 세상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외로운 아이들

인지라 남매간에 우애가 좋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지요.

두 녀석이 말로 가볍게 싸울 때는 좋게 타이르지만 치고 받고 싸울 때는 누구의 잘못임을 떠나 매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낀 것이지만 아들은 당연하다는 표정, 딸은 억울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시는 매를 들지 말아야지, 이제는



매를 들지 않아도 될 나이가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명종이가 누나 머리를 때려 훅이 나던가, 어진이가 동생을 깨물어 상처를 내면 결국 다시 매를 들게 되더군요.

퇴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하필 그날따라 아내가 야근을 하는 바람에 의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전화로 의논을 하기에는 제가 받은 실망과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두 녀석이 달려와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하며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한 후, 딸은 그냥 어정쩡하게 서 있고, 아들은 펄쩍 뛰어 안기더군요. 저는 조용히 아들을 떼어놓고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는 말없이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들은 “아버지, 피곤하세요”, “어디 아프세요” 하며 주변을 맴돌았지만 딸은 지은 죄가 있어서인지 가까이 오지도 못한 채, 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딸을 야단쳐야 하는지, 야단을 친다면 언제 어느 정도 쳐야 하는지 망설이다보니 기분이 더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어진이가 제 뒤로 다가와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 때문에 많이 실망하셨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자식을 혼낼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 말 한 마디에 제 마음은 눈 녹듯 풀려버렸습니다. 저는 뒤돌아서서 딸을 꼭 안아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기울고 꼬여 있는 건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제대로 된 대화조차 못하는 못한 아버지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란 반찬은 다 꺼내고, 오이 송송 잘라 고추장 한 숟가락 퍼 놓고, 미역국을 데워 아이들과 맛난 저녁을 먹었습니다. ♥

● 김정수 씨는 초등학교 2, 4학년에 다니는 남매를 둔 아버지로,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글로 써 매체에 기고하고 있는 시인이다. 시집으로 《서랍 속의 시막》이 있으며, 책 만드는 것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조그만 늙은 아버지가.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솟는다

“신 선생님, 이 학생 김두식,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담도 나지 않은 이마를 손등으로 훑치는 황 선생은 17년 경력의 베테랑 교사다. 평소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처럼 털털하고 넉넉하지만 생활지도를 할 때는 철저하고 엄격하여 때로는 야멸치게 보이기도 한다. 헌데 그날은 마치 저지레를 한 아이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서 ‘쿵’ 하고 웃음이 날 뻔했다.

두식이나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눈을 내리깔고 씩씩대는 걸 보니 여간 분통이 터지지 않는 모양이다. 정수리 부위 머리털이 한라산 분화구처럼 폭 파여 두피가 보일 정도로 췌하다.

“저런! 가위질을 당한 모양이구나! 쫓쫓.”

두식이는 분을 삭이지 못한 채 말했다.

“저, 자퇴할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몹시 억울한 모양이구나. 자초지종을 말해 보렴.”

“글쎬, 황 선생님이 너 자퇴할래 아니면 머리 잘릴래 이러시는 거예요.”

“설마 무턱대고 그러실 리가... 무슨 잘못을 했니?”

“담배 때문에...”

“으흠, 교내에서 흡연하다가 걸려서 머리 잘리는 쪽을 선택했던 말이지?”

“...”

자퇴하라는 으름장에 당황하여 식발지도를 선택한 두식이. 그러나 정작 멧덩 잘려나간 머리털을 보고는 울컥 복받치는 설움에 기어이 눈물을 펄펄 쏟으며 교무실에서 한바탕 소란을 피웠던 모양이다. 남의 몸에 손대는 것은 자연법을 어긴 것이라느니, 교칙은 선생님을 멋대로 만든 것이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느니, 자퇴할 테니 내 몸에 손대지 말라느니 하면서 씩씩댔던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두발규제가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의 판정이 마스크를 한창 달구고 있던 터. 두식이 부모도 교내봉사든 사회봉사든 교칙대로 처벌하면 될 일이지 아이 머리카락을 왜 함부로 잘라대느냐고 전화로 불멘소리를 한 것 같았다. 황 선생 나름대로는 아이를 생각해 내린 가벼운 처벌 조처였다.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정식으로 처벌하는 것은 학생의 이력에도 흔적이 남으니까 말이다. 게다가 삭발조치는 징벌과 흡연을 동시에 지도하는 셈이니, 도량 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라는 게 황 선생의 평소 생각이었다.

두식이 어머니와 통화했다.

“우리 애는요, 외모 콤플렉스가 있어요. 선생님도 보시다시피 개 얼굴이 말처럼 길잡아요. 그래서 늘 부모 원망하며 앞머리를 길러 이마를 가리고 다니는 아이인데… 저 꼴을 보니 에이 참, 속상해 죽겠어요.”

“그랬군요, 잘 알겠습니다. 두식이의 속상한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두식이를 다시 상담했다. 두식이의 생각과 감정을 수용하고, 진심으로 처지를 공감하며,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 상담이었다. 몇 차례에 걸친 상담을 통해 두식이는 차츰 안정을 되찾았다.

그럭저럭 1학년을 마치고 진급한 이듬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2학년 새 담임과 종종 트러블이 있더니만, 기어이 전학을 가겠다고 나선 것이다. 결국 두식이는 사물함을 비우고 대안학교로 떠나갔다. 안타까움이 앞서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잘했다 싶었다. 적응이 안 될 때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과감하게 바꿀 필요도 있고, 실행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두식이가 떠난 지도 벌써 1년. 상담 노트를 꺼내보다가 두식이 집으로 전화했더니 어머니가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의 힘없는 목소리가 가늘고도 느릿하게 들려왔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저는 두식이와 상담했던 K고등학교 교사입니

다.”

“아, 네…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용건으로 전화하셨나요?”

“두식이가 우리 학교를 떠난 지 오래 되었는데, 그쪽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지, 몸은 건강한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애 변변찮은 아이를 기억해 주시다니요. 정말이지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두식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공부는 여전히 대충대충 하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어머니, 두식이는 공부보다는 비즈니스로 성공할 겁니다.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잖아요. 그밖에도 좋은 점이 많은 학생인 걸요.”

내 말에 용기가 솟는 듯 두식이 어머니의 목소리에 문득 생각이 돌았다.

“그렇죠? 선생님!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선생님도 두식이가 리더십이 있다고 칭찬한 적 있어요. 정말 그런가 봐요.”

오늘 저녁에는 두식이 좋아하는 오징어볶음을 해야겠다는 어머니. 누군가 아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성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없던 힘도 솟게 하나보다.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두식이가 밝은 목소리로 안부 전화를 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요, 잘 지내고 있어요. 꼭 학교로 찾아뵙게요. 건강하세요, 선생님!”

아무렴, 힘내. 잘 될 거야, 그렇고 말고, 앞으로도 꼭 너를 기억할게. ♥



● 신규진 씨는 '자기 존중감을 살리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싶어하는 서울 경성고등학교 과학, 상담 교사로, 상담 경험을 7년하다고 실망하는 아이는 없다 등의 책으로 엮었다.

또또가 돌아왔다



그 친구를 만난 것은 실로 몇 달 만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동창모임에 연달아 빠지더니, 이번엔 자발적으로 연락을 돌려 우리를 한 자리에 모은 것이다. 명목은 그간 결석한 죄를 밥으로 갚겠다는 것.

약속 장소에 가니, 그 친구가 먼저 와 있었다. 그런데 한 눈에 봐도 얼굴선이 고와진 것이 예뻐져서 나타난 것이다. 나쁜이 아니다. 이어서 도착하는 친구들마다 마치 무슨 암호라도 되는 듯 그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너 예뻐졌다” 였다.

“야, 너들 너무한다. 밥 한번 산다고 했더니, 내 미모를 이제야 인정하고 말야.”

얼굴만 달라진 게 아니었다. 이렇게 여유있게 대화를 풀어가는 것도 큰 변화였다. 전 같았으면 친구들의 말에 웃기만 했다. 웃음도 흔쾌하기 보다는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웃음이었다. 다른 친구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었다.

작년 가을, 그 친구가 한밤중에 연락도 없이 집으로 나를 찾아왔다. 남

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 이혼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넋이 나간 모습이었다. 분노·배신감·불안·절망·두려움·수치심 이 모든 것이 친구의 마음속에 뒤엉켜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다.

“구차하게 매달리지 않을 거야. 나도 지존심 하나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 너무 억울해. 말도 안 되는 시집식구들의 억지와 요구를 맞춰주며 20년 넘게 살아온 대가가 겨우 이겨라니. 내가 믿고 사랑했던 남자가 겨우 이 정도의 인격밖에 안 된다. 내 생일에 남편이 사준 선물이 그 여자랑 같이 가서 고른 거라니… 그걸 받고 행복해 한 나는 뭐나…”

친구의 입에서는 독백인지 방백인지 모를 이야기가 하염없이 흘러나왔다. 친구의 얼굴을 마주 보기가 민망하여 식탁 등을 멀뚱히 올려다보았다. 발랄하고 야무지던, 또래보다 늘 성숙했던 단발머리소녀가 35년 후에 이런 모습이 될 줄이야. 나는 세월이 원망스럽고 남자라는 존재가 미웠다.

그날 이후, 친구는 다시 그 이야기



를 꺼내지 않았다. 이혼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리없이 시들어갔다. “나, 괜찮아. 내가 마음 정리하고 나니까 그 남자가 어떻게 하든 신경 안 쓰여.” 자식들을 생각해서 의연하게 대처하지만 속이 오죽할까. 어쩌면 겉으로 의연한 만큼 내상은 더 깊을

예전의 쾌활함을 되찾은 친구 앞에 나는 흥분했다. 과식을 했지만 친구의 웃음은 강력한 소화효소였

다. “예뻐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몇 달 나오지 마라. 그런 다음 나와서 밥 사라. 저는 예뻐지고 우리는 밥 얻어 먹고 좋지 않냐?” 나는 헤어지는 길에 괜한 너스레까지 떨어 친구를 응원하는 마음을 표시했다. 그간 내가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었냐?”고 굳이 묻지 않고 모른 척 해주는 것밖에 없었다.

“집으로 갈 거니? 내가 데려다 줄게.”

나는 친구의 차에 올라탔다. 안전벨트를 매자 차가 곧 출발했다.

“숙희야!”

“응.”
나는 괜히 긴장되었다. 그러나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다.

“뽀뽀가 돌아왔다!”

“응?”

“니, 남자 마음이 떠나면 같이 떠나는 게 뭔지 아니?”

“뭔데?”

“첫째, 뽀뽀가 없어져. 둘째, 휴대전화가 눈앞에서 사라져. 침대 머리맡에 두던 휴대전화가 항상 주머니 속에서 나오질 않지. 셋째, 집에서 샤워를 잘 안 해.”

듣고 보니 그럴 듯했다.

“응, 처음에는 남편이 인정하지 않더니, 나중에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빌더라. 진작부터 정리했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어. 그런데 뽀뽀가 돌아왔어.”

“잘 됐네. 휴대전화와 샤워도 돌아왔냐?”

“응.”

“그것도 삼위일체냐?”

“하하하, 그러네.”

내가 부부의 성에 대한 책을 쓰긴

했지만 새삼 뽀뽀라는 것에 대해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뽀뽀가 뭐야?”

“그건 순간의 신뢰이지. 그런 순간들이 이어짐으로써 신뢰가 쌓이는 거고.”

접촉, 그 중에서도 입술의 접촉이 갖는 중요함은 인간의 신체에서 입술이 갖는 의미에 비례한다. 입이 없으면 밥 못 먹고, 말 못 한다. 밥 못 먹으면 몸이 죽고 말 못 하면 마음이 죽는다. 그러하니 입의 접촉은 몸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는 것이다. 또한 뽀뽀의 자세는 서로를 향한다.

몸이 살고 마음이 살 때, 사람이 여여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부부가 서로를 향해 있을 때, 신뢰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부부살이에 일용할 양식이 되는 뽀뽀,

‘자, 빨리 뽀뽀합시다.’ ♥

● 오숙희 씨는 개인 상담소 ‘해심터’를 운영하며 방송과 강연, 집필 등 대중적인 여성학자로 활동중이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서 어떤 결혼이, 어떤 만남이 더 성숙한 결혼 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외계의 별에 떨어진 우주인이 된 기분

제주올레길

몇 달 전 걷기여행을 했던 제주올레길을 생각하면 바람이 들려준 노래가 퍼뜩 생각이 난다.

‘바닥에 남은 차가운 껍질에 뜨거운 눈물을 부어 / 그만큼 달콤하지는 않지만 울지 않을 수 있어 / 이제는 지친 마음을 쉬어’ ((브로콜리 너마저)의 노래 ‘유자차’)

제주도 바닷가를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동안 옷소매 사이로 노래가 스며들었다. 노란 유채꽃을 보고 유자차가 떠오르다니! 제주올레 여행길에 얻은 보너스다.

제주올레 여행은 언론인 출신 서명숙(52) 씨가 발굴한 ‘걷기여행’ 코스다. ‘올레’는 ‘골목길’이란 뜻이다. 현재 13코스가 개발되었다.

4시간 가까이 걸었던 제주올레 9코스는 다채로운 풍경을 선사한다. 가파른 언덕길과 해안절벽, 숲, 너른 해변을 경험할 수 있다. 숲을 걷는가 싶더니 바다



너른 해안의 올레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가나오고 모래밭 해변을 산책하는가 싶으면 절벽이 나온다. 마치 외계의 별에 떨어진 우주인이 된 기분이 든다.

이 코스는 제주도 남쪽 용왕난드르마을(대평포구)에서 출발해 박수기정을 거쳐 화순해안까지 총 8.81킬로미터 거리다.

출발지인 용왕난드르마을에는 잊을 수 없는 자연의 맛을 발견한다. 강된장 비빔밥과 보말수제비.

용왕난드르마을은 말 그대로 용왕이 사는 난드르(너른들)란 소리다. 이곳에서 아삭아삭 씹히는 강된장비빔밥과 바다 향이 싱그러운 보말갈국수를 만났다. 올레가 주는 산뜻한 자연의 향만큼이나 청량하고 신선한 맛이다. ‘용왕난드르향토음식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다. 이 식당은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집이다. 체험마을로 지정되면서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강된장비빔밥과 보말갈국수를 탄생시켰다.



보말수제비



강된장비빔밥은 버섯과 해초, 나물을 밥에 얹고, 이 마을에서 만든 독특한 강된장을 얹어 비벼 먹는 음식이다.

강된장은 마늘과 표고버섯을 잘게 썰고 으깬 두부와 8가지 채소(부추·양파 등)를 집된장과 함께 끓인 것이다. 매운 마늘의 맛이 어느새 사라지고 없다.

비빔밥 안의 해초는 깊은 바닷속 용왕님 냉장고에서 금방 꺼낸 것처럼 이삭이삭하다. 버섯은 버섯이 자란 나무를 통째로 들고 온 것처럼 숲의 향이 가득하다. 여기에 브라질 정글처럼 갈래갈래 얽힌 나무를 엮어 넣으니 마치 송고한 대지를 만난 듯하다. 이 위로 떡 하니 강된장이 올라탄다. 강된장은 먹을 수록 단맛이 칙칙 감긴다. 녹진한 소스 사이로 부서진 땅콩처럼 보말(바닷고동의 일종)이 씹는 맛을 더한다.

보말수제비도 인기의 한몫을 한다. 보말은 삶아 껍질을 벗기고 참기름을 넣고 볶은 후에 조물조물 만지다 보면 내장이 툭 터지는데, 그것을 이용해 국물을 만들고 반죽한 밀가루를 넣는 음식이다. 마치 녹차로 국물을 만든 것처럼 녹색의 물결이 출렁인다.

먹는 동안 자연이 입안 한기득 들어오는 느낌은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이리라. 걷는 동안 내 얼굴에, 내 어깨에 툭툭 말을 건 바람이 ‘강된장비빔밥의 맛은 어머니?’ 하고 물어온다. ‘알짜하고 청량한 바람 너처럼 기분 좋은 맛이야’ 라고 답한다. ♥

해물
강된장

cooking recipe 1

● 레시피_우영희(요리연구가)



© 강된장비빔밥_남도리마을

재료

양파 1개(큰 것)

① 1cm 넓이로 사각모양으로 썬다.

청양고추 10개

② 얇게 송송 썬다.

해물(오징어·쭈꾸미·조갯살·홍합살 등)

③ 2컵 분량으로 준비한다.

(해물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준비한다.)

된장 3~5큰술

다진 마늘 1큰술

※ Tip

된장으로 간을 맞춰야 하므로 조 절하여 넣어 주셔야 합니다.

※ 만들기

① 참기름 1큰술과 식용유 1큰술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낮은 온도에서 볶는다.

② 여기에 썰어 놓은 양파를 넣고 투명해질 때까지 볶는다.

③ 양파가 투명해지면 해물을 넣고 볶는다.(이때 해물에서 수분이 많이 나온다.)

④ 된장을 넣고 잘 어우러지도록 저어주고, 청양고추 썰어 놓은 것을 넣고 완성한다.

살아 있는 전설 배철수

사자갈기 같던 로커의 긴 머리는 단정한 단발로 바뀌었다. 트레이드마크였던 콧수염은 은색이 되었다. 하지만 배철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1990년 MBC 라디오 〈배철수의 음악캠프〉를 진행한 지 20여 년, 그동안 배철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저녁이면 라디오 스튜디오에 들어간다. 그사이 그의 방송을 들으며 엽서로 사연을 보내던 대학생은 다시 대학생 이들을 둔 부모가 되었고, 그 아들들은 IP나 CD 대신 MP3플레이어로 음악을 들으며 인터넷으로 실시간 사연을 보낸다.

배철수는 어느새 매일의 방송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살아 있는 전설이 되었고, 〈배철수의 음악캠프〉는 그 자체로 한국에서 라디오와 팝음악계 양쪽에서 역사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배철수가 음악적 영향을 받은 록의 전설 딥 퍼플부터 21세기의 팝스타 비욘세까지 수많은 팝스타들이 그의 방송을 거쳐갔고, 라디오 방송은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바뀌었다.

20여 년 동안 저녁 약속을 잡아본 적이 없는 배철수의 일상은 이 꾸준함에 대한 훈장 같은, 그만의 인생이다. 배철수는 방송을 하는 동안 단 한번도 핑크를 내지 않았고, “정신이 판 데 팔러 28초정도 멘트를 하지 않는 방송사고를 낸 것” 말고는 이렇다 할 방송사고도 낸 적도 없다. 요 몇 년 사이에는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담배를 끊고, 대화도 최대한 적게 하려고 한다고 한다. 또한 그는 가능하면 젊은 사람들과 많이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한다. 그래야 요즘의 트렌드에 적응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빌보드 차트를 오프라인의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확인하던 시절, 전화선으로 인터넷을 연결해 새로운 차트가 올라오는 즉시 인터넷으로 확인한 것도 그랬다. 〈배철수의 음악캠프〉가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원동력은 20여 년 전 프로그램을 들던 청취자들이 지금도 그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팝음악을 좋아하는 20-30대가 이 프로그램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7,000회의 방송을 치르는 사이 배철수는 지난 20여 년 간의 팝 음악의 흐름을 몸으로 느껴왔고, 그 역사를 담아 청취자들에게 알려준다.

지금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듣고 있는 청취자들은 신곡 하나를 들어도 배철수를 통해 그 곡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고, 그 곡의 모델이 된 선대의 노래는 어떤 것이며, 팝 음악의 흐름 안에서 그 곡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들 수 있다. 끊임없이 현재를 바라보며 살아온 덕에 오히려 20여 년 동안 쌓인 영광의 과거가 생겼고, 그것은 다시 현재의 젊은이들에게 전수된다. 배철수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지금 나이들었음을, 혹은 나이 들어감을 느끼는 21세기의 어른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은 아닐까.

배철수만큼 일에 모든 것을 맞출 자신은 없다. 하지만 과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현재에 충실하다면 지금 아이들에게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가교 역할은 해줄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배철수의 지난 20년을 위하여 건배. ♥



여성시대 진행 10년을 돌아보니

어쩌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을까? 1999년 6월 7일 시작했으니, 틀림없는 만 10년이건만 실감이 안 난다. 내가 라디오를 듣기 시작한 건 50년대, 아주 어린 날 재봉틀처럼 생긴 제니스라디오부터지만 진행을 맡은 건 1971년 가을부터다. 학생들이 많이 듣는 초저녁 시간대, 심야방송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가 내가 맡아 해온 시간대다. CBS 기독교방송에서 시작해 TBC 옛 동양라디오로 두 방송국을 오가며 일했다.

어떤 때는 CBS 오후 2시부터 4시, TBC 오후 4시부터 6시. 이렇게 믿기지 않는 편성으로 양방송사 간의 합이 아래 격일로 이쪽 저쪽 30분씩 녹음을 하기도 하고, 시청앞에서 종로5가까지 정신 없이 뛰며 전철을 애용했다. 전철 아닌 다른 해결책은 없었다. 70년대가 다 지나갈 때만 해도 진행자가 오프닝, 클로징 원고도 직접 쓰고, 섭외도 하고, 릴 테이프 걸어놓고 녹음도 하고, 편집실에서 스프라이싱 테이프를 갖고 씨름도 했다.

70년대 초 위수령 때는 때마침 휴교령도 내렸고, 방송국에서 종일 살다시피 하며 공부했다. 그렇게 2~3년이 지나니까 웬만큼 프로그램 만들기가 들여다보였다.

1993년 가을, 다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타 방송사에서 아침 9시부터 11시 시간대를 맡아 정치·경제·시사·문화 등을 다루는 정보프로그램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음악프로그램을 맡아 해왔다. 그러다가 IMF의 거센 바람에 나도 6개월간 방송을 쉬 적이 있다. 그때 잠시 MBC-FM에 월요일마다 편지사연 상담 코너가 있어 20여 분씩 맡아 얘기한 적이 있다. 나의 방송노동시간이 일주일에 20분에 불과하던 그때 1999년 5월 어느 날, <여성시대> 피디가 와서 “내일 하루만 생방송 진행을 해줄 수 있나?”고 물었고 흔쾌히 재미나게 당시 남자진행자인 김승현 씨와 두 시간을 진행했다. 손숙 씨의 뜻하지 않은 장관 발령으로, 그 하루의 편지히어로 6월 7일 나는 <여성시대> 짙잡이춤마로 들어앉았다.

그로부터 10년, 무엇보다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주신 술한 애청자와 그 사연에 귀 기울여, 마음 기울여 들어주신 보이진 않지만 너무도 귀한 애청자여 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혼자서만 진행해왔던 내가 같이 진행하는 남자 MC와 마음과 주파수를 맞추는 훈련은 결혼생활에 버금가는 좋은 훈련의 장이었다. <여성시대>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학교에서 자세 낮춰 여전히 배우는 학생의 자세를 가르쳐주었다.

마흔여덟 살 힘겨운 갱년기의 언덕을 <여성시대>와 넘기 시작했는데, 5년 정도는 힘겨운 사연의 무게만큼 내 가슴에도 진건하니 없던 기운이 느껴졌다. 사연이 방송된다고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현실에 무슨 변화가 생길까 회의적이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깨달았다. 자기 사연을 남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자기 객관화가 되었고, 그 비슷한 처지의 누군가가 들으면서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보이지 않는 파장이 서로를 연대시키며 거대한 어깨동무를 해준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것이 세상을 묶어주는 때가 되어 마음을 잡아준다는 사실을 말이다. 노래하는 일보다 라디오 일을 좋아했고, 라디오를 통해 어린 날의 힘겨움을 잘 넘겼고, 많은 것을 배운 나에게 하늘도 무심치 않으셔서 <여성시대>와의 인연을 맺어 주신 거라 믿는다. ♥



고요 속의 명상

고요하다. 아들녀석은 대학시험 150여 일 전이니, 제 방에서 공부를 한다고 두문불출이고, 밤 11시가 넘은 시간, 학원에 간 딸아이 데리러 아내가 집을 잠시 비운 이 시간, 적막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젊은 친구들을 만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될 수 있으면 일찍 하라고 권고했다. 결혼 안하기로 결심했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일찍 가서 애도 빨리빨리 낳아서 키워야 부모가 애하고 놀아줄 체력도 되고 유치원이던 초등학교든 보내놓으면 학부형끼리 나이도 엇비슷해서 친구도 되고, 서로 의논할 수 있는 조력자도 된다.

나는 조금 늦게 결혼한 탓에 후회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앞서 말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가장 치명적인 것은 늦도록, 죽도록 일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친구들 중에 조금 일찍 결혼한 친구는 예쁜 머느리를 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그의 아들녀석이 제 밥벌이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생활비가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으나, 부부만 사는 데 뭐 얼마나 들까 싶다.

생활비 걱정, 학원비 걱정에서 일찌감치 벗어난 친구들이 많

이 부럽다. 굳이 일찍 간 친구를 부러워할 것도 없이 적당한 나이에 간, 그러니까 29세에서 30세 정도에 간 친구들도 대학 고학년 내지는 졸업반의 자녀를 두게 되니, '이제 저 친구는 몇 년 안 남았구나' 하는 부러운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런 몇몇 이유로 결혼 늦게 한 것을 무척 후회하기도 했고, 그런 전철을 밟지 말기를 짚이 나는 대로 거품 뿜으며, 독려하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 저녁 문득 그간의 내 생각이 과연 옳았고, 일찍 결혼한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었던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된다.

지금은 너무 고요하다. 물론 몇 십 분 후면 나의 안면근육을 활짝 피게 해주는 딸이 들어올 것이고, 또 언제나 맑은 웃음을 짓는 아내도 들어온다. 그러면 집은 다시 약간 소란스러워지겠지…

만약에 내가 부러워하는, 일찍 결혼하고 애 낳고 혼인시키고 그랬다면, 아내와 나는 무슨 얘기를 나누며 길고도 긴 매일의 저녁시간을 보내게 될까? 복잡복잡거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이틀 조용해진다면 참고 기다릴 수 있겠으나, 언제 올 지 모르는 아들네, 딸네를 막연히 기다리며 내외만이 덜렁 앉아 몇날 며칠을 보낸다면 그도 보통 심각한 일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늦둥이는 아니지만 늦둥이 재미에 폭 빠진다는 얘기를 들긴 했는데, 그게 이런 느낌일까 하는 생각에 혼자 빙그레 웃어본다.

어찌됐든 10년 후에는 애들 다 보내고 하염없이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심심하게 보내는 그런 처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처량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정신이 번쩍 든다. 오늘 이런 마음이 든 이 순간부터 나도 독립을 꿈꾸어야 할 것 같다. 자식만이 부모슬하를 떠나 독립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인 우리도 자식들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 마음 편안한 노년을 보내지 못할 것 같다.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하는 느낌도 없지 않으나, 언젠가 한 번은 시간을 내서 깊게 생각해봐야겠다. 준비된 이별이 조금은 덜 아프지 않겠는가!

“다녀왔습니다.” 딸아이가 들어오고 있다. ♥



여자의 나이

우리 형제는 2남 2녀, 모두 미혼이다. 막내인 내 나이가 올해 서른셋, 주변에서는 늘 ‘부모님 근심이 크시겠다’, ‘아, 심란하다.’ 이런 반응을 보낸다. 정작 본인들은 결혼에 대해서 크게 조바심도 없고 꼭 결혼을 하겠다는 주의도 아니지만 얼마 전부터는 조금씩 걱정이 된다. 간만에 고향 집에 내려갔더니 마흔이 가까운 누나의 얼굴에 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주름이 한 가닥. “아, 심란하다.” 나도 모르게 뱉어낸 탄식에 “야! 뭐!” 라는 호통과 함께 “다시 봐봐. 다시 봐봐.” 떡살을 잡혔다. 과격한 성질도 그렇고, 유치하고 속 좁은 성격도 그대로인데 얼굴은 그렇지 않다. 작은 누나도 예외가 아니다. 대학생 때는 미성년자로 보는 주변 시선이 싫어 그토록 성숙한 옷차림을 추구했으나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에 모두 그림의 떡. 가끔씩 들르는 택배아저씨의 “사모님, 친정어머니가 김치 보내셨나 봐요.” 한 마디에 불을 뿜어내는 누나를 보면 나 역시 가슴이 먹먹해진다. “누나 아직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 “후반이면 몇 살?”, “어, 스물여덟.”, “스물일곱은 안 되고?”, “어, 그게 말이야..”

이런 누나들이 부쩍 나의 편견에 동의를 보이기 시작한 건 재

작년 즈음이다. “누나, 여자는 서른 넘으면 X잖아!란 말이 있잖아. 근데 어느 정도 맞는 말 같아.” 한참을 고민에 빠졌던 작은 누나가 기분 나쁜 표정으로 말한다. “응, 맞는 말이야. 나도 요즘 지난날이 후회 돼.”

사실 십여 년 전 먼 친척 이모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여자는 스물일곱 살이 정점이지. 이후에는 얼굴이 빛을 잃어가는 것 같아.” 그 말이 뇌리에 깊숙이 박힌 이후 난 여자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었고 나름 그렇게 틀리지 않은 가설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특히 눈의 충기가 식으면서 얼굴 전체의 빛이 사그라진다. 아마도 일찍이 사회생활을 한 까닭일까. 확실히 동년배 남자들에 비해 속도가 빠른 것 같다. 그를 증명하듯 학창시절 늘 여자가 끊이지 않았던 남자 친구들은 하나같이 조로운 모습이다. 핵심은 눈의 충기. 사실 남녀관계야말로 인류 역사 최고, 최대의 풍파 아니던가.

“저의 이상형은 눈이 맑은 사람. 정정당당함과 겸양의 가치를 겸비하고 특이나 어깨가 넓고 단단한 여성입니다.” 2년 전 봄, <윤종신의 두시의 데이트> 애인 공개수배 코너에 출연했던 난 바로 이와 같은 통찰의 결과, 이성의 눈빛을 강조했다. 당시 건너편에 게스트로 앉아있던 개그맨 박모 씨는 눈빛이 매우 맑지 못해 탁함에 가까웠다. ‘오호라, 이 양반 연애 꽤나 했겠는 걸? 쫓쫓.’

그런데 어설픈 통찰과 확신은 우스갯소리로 쓰일 때만 유용할 뿐, 때와 장소, 특히나 상대를 잘 가려야 한다. 작년 봄, 막 서른이 된 이는 동생에게 “너 결혼하려면 정말 서둘러라. 여자는 서른 넘으면...” 이라고 하다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봉변을 당했다. 법학과 출신이라 평소 논리적 어휘의 대가였던 그 애가 발끈, 호프집 탁자에 유리컵이 고공낙하하고,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앙칼진 고성이가 울려 퍼졌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평생 광쾌 형들 앞에서 그토록 고개를 조아리진 않았다. 이후 여자의 나이와 얼굴에 관해 말을 아끼게 되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래도 마음이 넓은 여성시대 청취자들을 믿고 평소 못난 지론을 밝혀본다. ♥

페르디난트 호들러의 <밤>

스위스 화가 페르디난트 호들러(1853~1918)의 <밤>(1890)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다. 태아처럼 웅크린 이도 있고, 자신의 짝에게 손을 얹은 이도 있다. 그 모든 동작은 그들의 의식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의식은 몸뚱어리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지 오래고, 의식이 떠난 몸들은 버려진 물건이 바람에 구르듯 그렇게 기쁘이리저리 뒤척일 뿐이다. 그 와중에 한 남자가 화들짝 놀라 깨어난다. 지금 검은 천을 뒤집어쓴 존재가 그의 몸을 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밤이다. 밤이 그를 덮쳐 그로 하여금 낮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공포스럽고 낯선 세계에 직면하게 한 것이다. 감춰진 인간의 내면, 바로 무의식의 세계다.

호들러의 그림에서 죽음의 이미지를 쉽게 대할 수 있는 것은 불행했던 그의 가족사와 관련이 있다. 호들러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 아버지를 폐결핵으로 잃은 그는 15세가 되기 전에 어머니와 그를 제외한다섯 명의 모든 형제자매를 같은 병으로 잃었다. 그 후에도 죽음의 역사는 계속돼, 그의 정부가 1913년 그에게 딸을 낳아 안겨줄 때 이미 그녀의 몸에는 암세포가 퍼져 있었고, 그녀 역시 얼마 못 가 죽는 불행을 당했다. 이런 비극적인 인생 배경을 가진 화가로서 그는 손에 붓을 들 때마다 삶과 죽음의 수수께끼에 깊이 침잠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호들러는 제네바의 에콜 데 보자르에서 미술 공부를 했다. 매우 사실적이고 아카데미한 화풍을 견지하던 그는 상징주의 시인 두코잘과 우정을 나누면서 상징주의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상징주의 예술은 기본적으로 보이는 세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의미를 드러낸다. 이 점은 호들러의 작품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술가의 사명은 자연의 외적인 요소, 즉 아름다움에 표현을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연으로부터 근원적 아름다움을 추출해내는 것이다.” ♥



* 호들러, <밤>, 1890.
유화, 116.5x299cm, 베른 미술관